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국제 심포지엄

#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14:00
- 장소 : 정동 세실극장

주최·주관 :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후원 :  국가보훈처

 **항단연**  
(사)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인사말

## 2019년 8.15 광복절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붙여

올해 2019년은 3.1혁명에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같은 대혁명적 민족 항일투쟁에는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빛나는 활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그들의 시대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항일여성독립운동사에 관한 학술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라는 취지의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본회는 3.1혁명 창립기념 행사와 8.15추모문화제는 물론, 지난 5년간 항일독립운동과 여성운동가에 대한 강연, 세미나,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집 발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 교육 활동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단체로서는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제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아주 기대가 큼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연구의 심화 및 진전을 기할 뿐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모문화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고찰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도 생산적으로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심포지엄을 참여하셔서 역할을 맡으신 분들,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먼길 와주신 강수옥 선생님과 이준식, 이지원, 김형목, 강정숙, 이숙화, 이선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항일여성독립운동사를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주신 것은 개인에 대한 큰 성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항일여성독립운동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계기가 되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라고 불려드려도 족한 해외 여성들이 군자금을 모은 과정이나 그것을 조직한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 8. 12.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희 선

## 발표자 실적 및 주요 저서

### 1. 이준식

現 독립기념관 관장

일 시	제 목	발행/출판
1993	농촌 사회 변동과 농민 운동	민영사
2009	조선공산당 성립과 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사비평사

### 2. 이지원

現 대림대학교 교수

일 시	제 목	발행/출판
2007	한국 근대문화사상사연구	혜안
2011	일제강점 지배사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5	미래세대의 동아시아 읽기	혜안

### 3. 김형목

現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일 시	제 목	발행/출판
2005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발전	교육과학사
2005	대한제국기 아학운동	경인문화사
2008	한국 육영사업의 어머니 최송설당	경인문화사

### 4. 강수옥

現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일 시	제 목	발행/출판
2011	근대 동아시아 중한일 삼국의 사회 변혁 연구	홍콩아시아출판사
2013	조선통사	연변대학교출판사
2015	중조 한일 문화 비교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국제심포지엄

### - 항일여성독립운동에대한 회고와 전망 -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14:00~17:30

장소 : 정동 세실극장

1부 사회 : **홍정석**(청년미래분과 위원장)

2부 사회 :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시 간	내 용
14:00~14:10	인사말 (김희선 본회 이사장)
14:10~14:20	축사
14:20~14:30	기념촬영
14:30~14:40	장내 정리
14:40~15:00	<b>기조발제. 이준식</b> (독립기념관장) 〈일제 시기 항일여성운동 연구사 회고와 전망〉
15:00~15:25	<b>발표1. 이지원</b> (대림대학교 교수) 〈일제 시기 국내 항일여성운동 연구사 검토〉
15:25~15:50	<b>발표2. 김형목</b>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1930-4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 연구사 검토〉
15:50~16:05	휴 식
16:05~16:30	<b>발표3. 강수옥</b>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과제〉
16:30~17:30	<b>토론. 강정숙</b> (성균관대), <b>이숙화</b> (한국외대), <b>이선이</b> (경희대) 등
17:30	폐회



# | 목 차 |

## ■ 기 조 발 제

- I. 「일제 시기 항일여성독립운동 연구사 회고와 전망」 ..... 1  
(이 준 식 독립기념관장)

## ■ 발 표 문

- I. 「일제시기 국내 항일 여성운동 연구사 검토」  
(이 지 원 대림대 교수) ..... 25
- II.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  
(김 형 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7
- III.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과제」  
(강 수 옥 중국 연변대 교수) ..... 65

## ■ 토 론 문

- I. 강 정 속 (성균관대학교) ..... 79
- II. 이 숙 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83
- III. 이 선 이 (경희대학교) ..... 87



국제 심포지엄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기조발제

일제 시기 항일여성독립운동 연구사  
회고와 전망

이 준 식 (독립기념관 관장)

---



# 일제 시기 항일여성독립운동 연구사 회고와 전망

이 준 식 (독립기념관 관장)

## 1. 여성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 교과서는 결국 폐기되었다. 여기서는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새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워낙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거센 비판에 문혀서 그렇지 국정교과서에는 이전의 검정교과서에 비해 달라진 모습도 있었다.

국정교과서는 이례적으로 ‘주제로 읽는 역사: 일제에 맞선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제목이 붙은 쪽지의 한 쪽에서만 모두 16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윤희순, 조마리아, 이은숙, 허은, 김마리아, 유관순, 조화벽, 안경신, 남자현, 권기옥, 정정화, 곽낙원, 오광심, 지복영, 김정숙, 민영주)를 소개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과 이상룡의 손주 며느리 허은이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하고 보살핀’ 것도 독립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물론 워낙 많은 인명이 등장하다 보니<sup>1)</sup> 관련된 서술은 단순하기 짝이 없다. 이를테면 “윤희순은 여성 의병을 이끌었고” “권기옥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서 독립 운동에 투신하였”으며 “오광심, 지복영, 김정숙, 민영주 등은 한국 광복군에 입대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는 식이다. 연도도 없고 자세한 설명도 빠진 많은 인명을 학생들은 달달 외워야만 하니 역사교육으로서의 영점짜리 서술이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까지 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강조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의식한 결과였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2015년에 개봉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암살>이라는 영화가 눈길을 끈다. <암살>은 독립운동과 친일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개봉관에서만 1,27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보았으니<sup>2)</sup> 국민 4명 당 1명꼴로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1) 여성 독립운동가 외에도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이회영 6형제, 이상룡, 김구 같은 남성 독립운동가 이름도 나온다. 한 쪽에만 모두 22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셈이다.

2) <암살>의 흥행 기록은 2015년에는 2위, 2015년까지는 역대 7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찾은 것이다. 아니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였으니 거의 3명 당 1명꼴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다.

〈암살〉의 주인공을 한 명만 꼽으라면 전지현이 맡은 ‘안옥윤’이라는 가상의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안옥윤은 남성 독립운동가 2명과 함께 조선군사령관과 친일파 거두를 암살하기 위해 중국에서 서울로 잠입하는 암살단의 대장 역할로 나온다. 여기에 암살단을 도와주는 서울의 연락책도 ‘아네모네 마담’이라는 가상의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또 있다. 친일파 강인국의 부인이자 안옥윤의 어머니이다.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이 영화에는 가상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을 비롯해 세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등장하는 셈이다. 내가 아는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비중이 이만큼 큰 영화는 〈암살〉 이전에 없었다. 물론 암살단의 배후 인물로 그려진 김구와 김원봉의 두 남성 독립운동가도 나오지만 관객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가상의 인물인 ‘하와이 피스톨’을 맡은 하정우나 역시 가상의 인물인 ‘속사포’를 맡은 조진웅이 아니라 암살단 여성 대장 안옥윤을 맡은 전지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도 안옥윤이 이정재가 맡은 밀정 염석진을 처단하는 장면이다.

영화 〈암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여성이 암살단 대장으로 설정된 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안옥윤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긴 관객은 없었다. 암살단 대장 안옥윤이 가운데, 그리고 안옥윤의 왼쪽과 오른쪽에 ‘황덕삼’과 속사포라는 두 남성이 자리를 잡은 암살단 기념 사진<sup>3)</sup>도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아마 20년 내지는 30년 전에 〈암살〉처럼 여성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영화가 나왔다면 관객들은 ‘여자가 대장이라고?’ 하며 고개를 가우뚱 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5년이라는 시점에 많은 관객은 오히려 안옥윤이 어떤 실존 인물을 상징하고 만든 가상의 인물인지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남자현이나 안경신 같은 의열투쟁 계열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온라인에서는 안옥윤이 남자현이나 안경신이라는 실존 인물을 본 땀다는 이야기가 마치 사실처럼 퍼져 나갔다.<sup>4)</sup> 당연히 우리는 그동안 왜 남자현이나 안경신을 몰랐을까 하는 이야기도 덩달아 나왔다. 실제로 〈암살〉 개봉 이전만

3) 이 사진은 이봉창과 윤봉길이 각각 의거를 앞두고 한인애국단에 입단하면서 찍은 사진을 차용한 것이다.

4) 국가보훈처에서 2018년 8월 5년 동안의 빅데이터 139억 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48명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국민에게 잘 알려진 유관순(전체 4위) 외에 남자현(전체 12위), 안경신(전체 17위), 박차정(전체 24위) 등이 포함된 것은 〈암살〉과 2016년에 개봉된 〈밀정〉의 영향일 것이다. 이밖에도 윤동주가 전체 3위, 박열이 전체 8위에 오른 것도 영화 〈동주〉와 〈박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도 남자현이나 안경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상적인' 역사교육을 받았다면 남자현이나 안경신을 알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고등학교에서 쓰이던 한국사 교과서만 놓고 보더라도 남자현이나 안경신의 이름이 나오는 교과서는 단 한 권도 없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니 남자현이나 안경신 같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여성 독립운동가를 서술한 교과서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2013년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태 당시 유관순을 서술했느냐 서술하지 않았느냐, 서술했다면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했느냐 하는 문제로 해괴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유관순을 제대로 서술했으면 제대로 된 교과서, 유관순을 서술하지 않았으면 좌파 교과서라는, 말도 되지 않는 천박한 이분법적 인식이야 그렇다 쳐도 유관순 한 사람만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징처럼 거론되는 현실이 서글팠던 기억이 새롭다. 논란을 벌이려면 그 초점은 유관순이 아니라 유관순 이외의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 아니 여성 독립운동 자체가 어떻게 서술되었는지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논란은 유관순만이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임을 새삼 확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일부 교과서가 박근혜정부의 교육부와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뒤늦게 유관순 서술을 추가로 넣었지만 8종의 교과서에서 유관순 이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은 눈을 찧고 찾아도 찾기 힘들 정도였다. 3·1운동 과정에서 유관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첫 여성 의원이 된 김마리아의 이름도 여성 독립운동가로서는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남자현의 이름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다.

8종 교과서 가운데 채택률이 5위에 지나지 않은 지학사 교과서가 '심화 주제 일제 강점기에 살던 여성들을 만나다'라는 별도의 꼭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나혜석, 권기옥, 강주룡, 최은희를 소개하는 것이 이례적일 정도였다. 내용이나 체제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그래서 채택률도 가장 높았던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최익현, 서재필, 이상설, 이준, 이위중, 민중식, 최익현, 유인석, 이인영, 이범윤, 홍범도, 차도선, 허위, 이소응, 민공호, 이강년, 노응규, 임병찬, 안규홍, 기우만, 전해산, 박은식, 민영환, 조병세, 나철, 오기호, 장인환, 전명운, 안중근, 이재명,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회영, 이상룡, 안명근, 이승훈, 서상돈, 장지연(사후 변절), 손병희, 나철, 오기호, 한용운, 주시경, 박상진, 채응연, 김동삼, 이동휘, 박용만, 이시영, 김규식, 이승만, 신규식, 이동녕, 김구, 조만식, 안희제, 이상재, 홍명희,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백남운, 최현배,

이극로, 이윤재, 한징, 방정환, 나운규, 이상화, 심훈, 이육사, 윤동주, 안무, 최진동(?), 서일,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신숙, 김산, 김원봉, 강우규, 김익상, 김지섭, 박재혁, 김상옥, 나석주, 양세봉, 이봉창, 윤봉길, 조소앙, 손일봉, 한청도, 노농서, 김준엽, 장준하, 김두봉, 여운형(이상 이름이 나오는 순서) 등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남성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유관순, 나혜석, 허은, 이은숙 4명뿐이다. 그것도 나혜석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신여성으로서 양성평등과 여성 해방을 추구한 여성 운동가”로 언급되었고 허은과 이은숙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회고한 자료를 남긴 이로 언급되었을 뿐이다.<sup>5)</sup>

나로서는 영화 <암살>이 현재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다.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여성 독립운동을 다루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은 여성도 독립운동을 벌였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뀐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이끌면서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아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2015년만 해도 정부가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아내서 훈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전체 독립유공자 가운데 여성 독립 유공자는 2% 남짓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학계에서 남자현이나 안경신을 다룬 논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도<sup>6)</sup>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과 안경신을 알아내고 거기에 <암살>의 안옥윤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암살>은 정부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서훈에 경종을 울리고 학계의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5) 허은과 이은숙은 2018년에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6) 2015년 당시 남자현에 대한 논문은 박용옥, 「윤희순 의사와 남자현 여사의 항일독립투쟁」, 『의암학연구』, 6(2008) 한 편 밖에 없었고 나중에 강운정,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2018) 한 편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남자현의 평전이 나온 것도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다음인 2018년으로 이 해에만 강운정, 『남자현: 한국 근대의 여걸』(지식산업사, 2018); 이상국, 『남자현 평전: 나는 조선의 총구다』(세창출판사, 2018)의 두 권이 출판되었다. 안경신에 대한 논문이나 평전은 2015년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독립기념관에서 펴내는 『독립기념관』에 짧은 두 편의 글이 실렸을 뿐이다. 독립기념관 학예실, 「임신부, 일제의 기관을 무력으로 응징하다: 안경신(1888. 7. 22~미상)」, 『독립기념관』, 327(2015); 윤정란, 「안경신, 제국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여성독립운동가」, 『독립기념관』, 330(2015)

## 2.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의 과거와 현재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2017년 3월 1일 현재 15,511명(외국인 89명 포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여성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까? 2019년 8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밝힌 여성 독립유공자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431명이다.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전체 서훈자 가운데 3% 남짓인 셈이다. 그나마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 독립유공자 서훈의 폭을 넓혀 140여 명을 새로 서훈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2017년 초만 해도 독립유공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에 주어지는 서훈 가운데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30명(외국인 5명 포함) 가운데 여성은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명목의 중국인 송미령(중국 국민당정부의 최고 지도자이던 장개석의 부인) 1명뿐이다.<sup>7)</sup> 그리고 다음 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92명(외국인 11명 포함) 가운데 여성은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분야에서 활동한 남자현 1명뿐이다.<sup>8)</sup> 세 번째 등급인 독립장을 받은 821명(외국인 35명 포함) 가운데서도 여성은 10명(권기옥, 김마리아, 김순애, 박차정, 방순희, 안경신, 오광십, 유관순, 이신애[강우규 의거 지원, 대동단 만세 시위 계획 참여], 이애라[3·1만세시위 참여, 국민대회 참여, 피살 순국])에 지나지 않는다.

**<표 1> 여성 독립유공자 서훈 현황**

연도별 훈격별	계	건 국 훈 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소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합계	431(5) <sup>9)</sup>	191(4)	1(1)	1	10	39(1)	140(2)	49(1)	191
1962	5	5		1	4				
1963	3	2			2				110)
1966	1(1)	1(1)	1(1)						
1968	0								0
1977	3	3			3				

7) 올해 유관순이 대한민국장을 받았지만 이는 독립운동의 공적에 따른 훈격 상향 조정이 아니라 해방 이후 이름이 많이 알려져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감안된 추가 서훈일 뿐이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유관순의 훈격은 여전히 독립장이다.

8) 조소앙은 남자현이 순국한 직후에 남자현을 ‘여협’에 ‘선생’으로 극찬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소앙, 「여협남자현선생전」, 『진광』, 1(1934)

연도별 \n                훈격별	계	건 국 훈 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소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1982	0								0
1990	81	81				21	60		
1991	7	7				4	3		
1992	11	3				1	2		8
1993	6	1				1		4	1
1995	30	22			1	5	16	2	6
1996	5	3					3	1	1
1997	3	2				1	1	1	
1998	3	1					1	2	
1999	1								1
2000	1	1					1		
2001	3	2					2		1
2002	5	3				1	2	2	
2003	3							2	1
2004	1							1	
2005	5							2	3
2006	5	3					3	1	1
2007	7	3					3	1	3
2008	10	3					3	2	5
2009	4	1				1			3
2010	14	5					5	2	7
2011	3	1					1		2
2012	10	2				1	1		8
2013	10	5					5	3	2
2014	10	2				1	1	2	6
2015	21(1)	3					3	5(1)	13
2016	14(1)	4(1)					4(1)	2	8
2017	11(1)	8(1)					8(1)	1	2
2018	60	11(1)				2(1)	9	9	40
2019	75	3					3	4	68

9) ( ) 속의 숫자는 외국인을 가르킨다.

그러나 여성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독립운동이 남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직접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이름을 남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독립운동에 기여한 경우도 있다. 숫자로 따지면 후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더 정확하게는 무지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남성 중심으로 역사를 보도록 배워왔기 때문이다.<sup>11)</sup>

학교에서의 역사교육부터 그렇다. 최근 들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등장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성은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다. 여성 독립운동가라고는 기껏해야 유관순의 이름만 유난히 강조된다.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모두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근우회 등의 여성운동 단체가 꾸려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해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서술만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 여성들은 독립운동가라는 호칭을 얻은 일부를 제외하면 민족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남녀평등을 위해 단체를 만들고 이러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여성은 독립운동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근우회와 같은 시기에 똑같이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출범한 신간회에 대해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대비된다. 물론 이러한 서술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니 교과서 필자들만을 탓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관순 외에는 이름이라도 아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별로 없었다. 아니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만을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었다. 일제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 계속 만세를 부른 유관순의 의지는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유관순보다 더 결연하게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일제에 맞서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도 유관순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경향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유관순이 곧 여성 독립운동의 모든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 독립운동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전제는 남성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는 것을 깨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독립운동에 헌신했는가 하는 문제를

10) 1990년에 지금의 7등급 서훈 제도로 바뀌면서 기존의 건국포장은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대통령표창은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전환되었는데 1명은 사후 행적 이상이 문제가 되어 대통령표창 존치로 결정되었다.

11) 서양 역사학에서는 이미 남성의 역사를 의미하는 history를 여성의 역사를 의미하는 herstory로 바꾸거나 같이 써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 바 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독립운동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비분강개했고 그러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차별이 다른 모든 차별의 뿌리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민족해방이야말로 여성해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여성도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함께 같은 걸음으로 민족해방을 위한 활동의 일선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 3. 민족해방의 주체가 된 여성 독립운동가

한국 근대여성사를 희생의 역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여성이 이른바 ‘민족담론’의 희생자가 된 것처럼 보는 경향마저 등장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여성이 일제에 의해 또는 일제가 온존시킨 반봉건적 사회제도에 의해 많은 억압과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자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사실이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성을 희생자로만 파악하는 시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안중근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아는 이름이다. 그런데 안중근의 어머니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이제는 아는 사람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민 예능프로그램이라는 <무한도전>에서 몇 해 전에 안중근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아 죽음을 앞둔 안중근에게 어머니는 “나라를 위해 탄압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나라의 독립이라는 큰 뜻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안중근 의거는 가능했을 것이다. 안중근 어머니의 이름은 조마리아 또는 조씨 성을 가진 여자라는 의미의 조성녀이다. 그리고 조마리아는 아들의 죽음 이후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sup>12)</sup> 조마리아만이 아니다. 안중근의 집안에는 안중근의 반려인 김아려, 안중근의 동생인 안성녀, 안중근의 조카인 안미생<sup>13)</sup> 같은 여성도 있었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12)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활동은 1926년에 출범한 상해재류동포정부경제후원회(위원장 안창호)의 정위원을 맡은 것이다. 오일환, 「조마리아의 생애와 여성리더십」, 『민족사상』, 7(4)(2013), 81-82쪽.

13) 독립운동가 안정근의 딸이자 김구 큰아들 김인의 부인이다. 해방 전에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으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김구의 비서로 있었다. 지금까지 서훈되지 않았다.

사람은 거의 없다.

안동의 고성 이씨 하면 안동에서도 손꼽히 명문이다. 고성 이씨의 종손인 이상룡이 일제강점 이후 만주로 망명하면서 상당수의 집안사람이 이상룡을 따라 독립운동을 벌였다.<sup>14)</sup> 그래서 현재 안동의 고성 이씨는 독립운동에서도 명문으로 꼽히고 있다. 인척을 제외하고도 모두 10명의 서훈자가 나왔으니 독립운동의 명문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룡 일가의 독립운동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이상룡의 손주며느리인 허은이다.<sup>15)</sup> 한말 최대의 연합 의병부대인 13도창의군의 군사장이던 의병장 허위와 같은 집안 출신인 허은<sup>16)</sup>은 시할아버지 이상룡, 시아버지 이준형, 그리고 남편 이병화로 이어지는 3대가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한 독립운동가이다. 허은같은 여성이 없었으면 고성 이씨 3대의 독립운동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포기한 남자들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 독립군을 위해 조식(朝夕)을 준비하는 것은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의 부인, 며느리, 딸의 몫이었다. 허은은 다른 독립운동가의 부인, 며느리, 딸처럼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냄으로써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숨은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허은이 남긴 회고록에서 몇 대목만 인용해보자.

서로군정서에서는 의복도 모두 단체로 만들어서 군정서 직원들에게 배급해 주었다. 부녀자들이 동원되어 흑광목과 솜뭉치를 산더미처럼 사서 대량으로 생산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식 검정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도록 했다. 이 두루마기 한 벌을 받으면 다 해지도록 입곤 했다. 중국식 복장이 한국인이라 표도 잘 안 나고 한복보다 활동하는 데도 더 편했다. 나도 그 옷을 솔하게 만들었다. 김동삼, 김형식 어른들께 손수 옷을 지어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개가 헤아릴 길 없다.<sup>17)</sup>

항상 손님(독립운동가들-인용자)은 많았는데, 뗏거리는 부족했다. 점심 준비하느라 어떤 때는 중국인에게서 밀을 사다가 국수를 만들곤 하였다. 마당의 땡벌 아래서 땡뚝을 돌려 가루를 내고, 또 그것을 반죽해서 국수를 뽑았다. 고명거리가 없으니 간장과 파만 넣어 드렸다. 삼시

14) 이상룡에 대해서는 채영국, 『서간도 독립군의 개척자 이상룡의 독립정신』(역사공간, 2007); 김희곤,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내일을 여는 역사』, 69(2017) 등을 볼 것.

15) 정부가 독립운동가의 아내에 대한 서훈 방침을 정하면서 2018년에 뒤늦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2019년에는 이상룡의 부인이자 허은의 시할머니인 김우락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16) 허은의 할아버지인 허형이 허위의 사촌 형이다. 허은의 아버지 허발의 누이동생인 허길의 아들이 이육사이다. 그러므로 허은에게 이육사는 고종사촌오빠인 셈이다. 그리고 허형의 동생인 허필의 둘째 아들이 허형식이다. 허형식은 동북항일연군 3로군의 참모장으로 1942년 8월 전사할 때까지 북만주에서 항일유격투쟁을 벌였다.

17)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민연, 2010), 117쪽.

세끼 준비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시집은 다음 해에 한번은 감기가 들었으나 누워서 쉴 수가 없었다. 무리를 했던지 부뚜막에서 죽솥으로 쓰러지는 걸 시고모부가 지나가다 보고는 얼른 부축하여 떠메고 방에다 눕혔다. 다음 날도 못 일어났다. 그때가 열일곱 살, 그러니까 1923년이 었다.<sup>18)</sup>

애기 낳은 지 한 달이 되니까 애 아버지가 왔다. 그때 잠깐 와 보고 훌쩍 떠난 후로 육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다. 신흥무관학교 다닐 때 벌써 독립운동 바람이 들었다. 열여섯 살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학기에 이미 만주 전역과 전 조선을 훑고 다닌다고들 했다. 정의부 요원으로 무장한 채 압록강을 건너가 평북 청성진의 일본놈 지서를 때려 부수었다. 그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연락을 한 번 받고는 종무소식이였다. 어디 가서 죽었으려니 생각하고 지냈다. 감옥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도 별 도리가 없었으니까... 나타나면 그제야 왔나 보다 했다. 육 년 동안 네 분 어른들 조석 봉양하고 사랑손님들 치다꺼리만 해도 역부족이었다.<sup>19)</sup>

안동의 또 다른 명문인 의성 김씨도 이상룡 집안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의성 김씨 집안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 손으로 꼽을 만한 인물이 '만주별 호랑이'로 불리던 김동삼이다.<sup>20)</sup> 김동삼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로 조직된 백서농장 장주였으며 나중에는 서로군정서와 정의부의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순국했다. 그런데 '직업혁명가' 김동삼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박순부이다. 김동삼의 큰 며느리인 이해동은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sup>21)</sup>

시어머님(박순부-인용자)은 혁명가의 부인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0세의 나이로 고향에서 갈라진 시어머님은 아들 형제를 데리고 만주에 와서도 남들처럼 남편과 함께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여 본 적이 없다. 정말 과부나 다름없이 청춘을 살아 오셨던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독립운동에 바쁘신 시아버님께서서는 집에 두 번밖에 오신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삼원포에서 동생이 일본 토벌대에게 학살될 때 하루 저녁 왔다 가시고, 또 한 번은 우리 집이 북만주 영안현에 이주했을 때 첫 며느리를 보러 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떠났다. 채가고에서 내가 찾아들을 얻었을 때 손자를 보러 오셨다가 그 이튿날 하얼빈으로 가는 기목에 시모친이 계신 소가하에 들리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얼빈 영사관에 체포되어 가족이 면회는 가는데 시모친은 남편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남편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시어머님 생각은

18) 위의 책, 126-127쪽.

19) 위의 책, 130쪽.

20) 김동삼에 대해서는 김희곤, 『만주별 호랑이 김동삼』(지식산업사, 2000); 김병기, 『만주지역 통합운동의 주역 김동삼』(역사공간, 2012) 등을 볼 것.

21) 이해동, 『만주생활 77년』(명지출판사, 1990)

구식 여성으로서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남편에 대해 불평 한 마디 없었고 말없이 참고 침묵으로 살아온 시어머님의 일생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시아버님께서 직업 혁명가로 평생을 국권 회복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시어머니 몫도 있다고 생각한다.

며느리의 평가처럼 ‘직업혁명가’ 김동삼의 혁명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인인 박순부였다. 그렇지만 박순부는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은숙이라는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다.<sup>22)</sup> 그러나 이은숙의 남편인 이회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계속 이름이 나오고 그것도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니 모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조선의 ‘삼한갑족’인 서울 경주 이씨 이회영 6형제 이야기는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다. 이회영 일가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왔다. 이회영을 제외하고도 모두 10명이나 서훈을 받았다. 이회영 일가 남자들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한 것은 이은숙을 비롯한 경주 이씨 집안의 여성들이었다.

허은, 박순부, 이은숙처럼 독립운동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을 뒷받침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이러한 여성의 활동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8년에는 이은숙과 허은, 2019년에는 김우락, 한도신(독립운동가 김예진의 부인)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것이다. 서훈 근거는 회고록이었다.<sup>23)</sup> 여성 독립운동가가 남긴 회고록을 바탕으로 서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회고록을 남길 기회조차 갖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아내나 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 서훈에 대한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성이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만 독립운동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오해이다.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남존여비의 생각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운동을 벌이는 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 굴레를 극복하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벌이는 여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다.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뿐만

22) 이은숙도 허은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 뒤늦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23) 허은, 앞의 책;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서간도 시종기』(정음사, 1979); 한도신, 『꿈갓흔 옛날 피압흔 이야기: 격랑의 역사를 헤쳐 온 여성 독립운동가 한도신 회상기』(민연, 2016)

아니라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도 결코 적지 않았다.

여성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양상은 19세기 말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에 국한되었다. 아직 유교적 질서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민족운동을 벌이기는 어려웠다. 보기를 들어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의병장의 며느리인 윤희순은 의병운동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희순이 여성도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비해 윤희순의 시아버지로 대표되는 남성 의병장들은 유교적인 남녀역할관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0년 국망이 되자 이러한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독립운동의 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19년에 발표된 <대한독립여자선언서><sup>24)</sup>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상무정신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서를 만든 여성들은 여성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 등의 점진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력’과 ‘순국’에 의한 ‘구국’이라는 운동방략을 여성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 눈에 띈다.

1919년의 3·1운동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했다. 3·1운동에서는 각 지역의 만세시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계획단계부터 남녀가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여성3·1운동에서의 여성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여성 특히 여학생이 만세시위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을 계속 보도했으며<sup>25)</sup> 심지어는 “대한독립을 위한 첫 피는 대한 여자에게서 흘렀다”<sup>26)</sup>는, 다소 과장된 기사까지 실었다.

3·1운동 이후 남성 못지않게 무장투쟁, 의열투쟁, 대중투쟁, 임시정부 활동 등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여성 독립운동가가 여럿 나왔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1930년대 초 평양에서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순국한 강주룡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다.<sup>27)</sup> 강주룡은 1931년 5월 29일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무공장 자본의 임금인하에 맞서

24) 이 선언서에 대해서는 박용옥,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연구-대한독립선언서와의 관련성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4(1996) 볼 것.

25) 대표적인 것이 1919년 9월 27일부터 연재된 「여학생일기」이다. 이 일기의 필자는 심원여사로 적혀 있다. 이밖에 「여학생의 애국정신」, 『독립신문』, 1919년 11월 20일; 「부인과 독립운동」,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 「함흥독립운동실기」, 『독립신문』, 1920년 3월 20일 등을 볼 것.

26) 「부인과 독립운동」,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

27) 강주룡에 대해서는 최규진, 「다시 돌아온 채공녀와 굴뚝남의 시대」, 『의료와 사회』, 2(2015) 볼 것.

죽음을 각오한 1인시위를 벌여 “체공녀(滯空女)” 곧 ‘공중에 떠 있는 여자’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의 맹렬 여성 노동운동가였다. 다음 달 이른바 평양적색노동조합사건에 연루되어 일제경찰에 체포된 강주룡은 감옥에서 1년 동안 비타협의 옥중투쟁을 벌이던 끝에 1932년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두 달만에 평양의 한 빈민굴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31년의 짧은 삶을 마감했다. 강주룡의 노동운동은 워낙 세상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신문과 잡지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정부는 2007년 강주룡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바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운용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는 강주룡의 독립운동 공적이 “1931년 정달현의 지도하에 평양적색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평원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여 을밀대 상에 올라가 단식을 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뒤 옥고를 치르다 병보석 출옥 직후 순국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다. 그러나 이 공적 개요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져 있다. 강주룡이 만주에서 결혼한 뒤 1920년대 초에 남편과 함께 백광운(본명 채찬)이 이끄는 독립군부대에 들어가 6~7개월 정도 활동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1910년대 말과 1920년대 초 만주에서 활발하게 벌어진 독립군의 무장투쟁에 여성도 참여했지만 그러한 사실이 무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929년 12월과 1930년 1월 서울에서도 두 차례의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1930년 1월에 일어난 서울의 2차 학생시위는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위여서 ‘여학생 만세시위’라고도 불린다.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의 간부이던 허정숙이 서울의 여러 여학교 학생들을 조직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것이다. 서울의 2차 학생시위에는 모두 5,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주축은 여학생들이었다. 당시 서울의 여학생 숫자를 놓고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여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흔히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일어난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광주학생운동 당시 서울의 2차 시위투쟁을 주도한 것은 근우회와 연결된 여학생들이었다. 이제 여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규모 시위투쟁을 벌일 정도의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민족해방, 여성해방을 향한 여성의 주체적 자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도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해 애초에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충돌하게 된 발단인 박기옥이라는 여학생 이름은 거론되어도 시위투쟁을 주도한 허정숙은 물론이고 시위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존재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여학생 만세시위의 주역인 허정숙이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해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지던 화북지역에서 화북조선 독립동맹 집행위원, 조선의용군 교관 겸 정치부 주임으로 활동하는 등 해방의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여학생 만세시위와 관련해 특별한 인물은 더 있다. 송계월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33년 6월 1일자 『매일신보』에는 “『개벽』사 부인기자로 여류문단의 이름을 날리던 송계월양은 지난 봄부터 폐결핵으로 북청군 신창리 자택에 돌아간 이래 정양 중이던 바 작 30일 오후 11시 경 별세하였는데 방년 22세라고 한다”라는 부고 기사가 실렸다. 송계월은 경성여자상업학교 재학 중 1930년 1월 서울의 여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한 여성 투사였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출옥 후 『개벽』의 여기자로 활동하다가 옥고의 여파로 몸이 나빠져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에 돌아갔다. 그런 송계월을 남성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로 송계월의 죽음을 보도한 한 잡지 기사에 따르면 “아기를 배가지고 시골로 갔다는 얼토당토 아닌 소문이 따라서 돌아다니게 되었다. ‘뭘 송이 아기를 배!’, ‘그 결곡한 체 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로군’ 이 구석 저 모퉁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런데 소문의 출처는 “가장 탐탁한 일 등무로 믿고 지내던 문단의 한 사람”<sup>28)</sup>이었다는 것이다 스물 두 살의 젊은 미혼 여성, 그것도 폐결핵이라는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에 걸린 여성 투사에게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것이 당시 지식인 사회의 풍토였던 셈이다. 그런 풍토가 아직도 견히지 않아서일까? 송계월은 현재 미서혼 상태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는 이밖에도 무수히 많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1명만이 아니었다.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중요하다. 아직 여러 이유로 서훈되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이 있다. 이들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 4.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오늘 발제를 위해 여성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과 저작을 찾을 수 있는 범위<sup>29)</sup> 안에서는 최대한 찾아보았다.<sup>30)</sup> 검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와 누리미디어의 디비피아(<http://www.dbpia.co.kr/>), 그리고 국회

28) 「미인박명애사 무漸한 문단의 명화 송계월양」, 『삼천리』, 1935년 3월호, 143 ~ 144쪽.

29) 당연히 누락된 논문이나 저작도 있을 것이다.

30) 석박사 학위 논문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유관순 관련 논문 상당수도 제외했다. 예컨대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유관순연구소를 만들어서 『유관순연구』를 펴내고 있는데 현재 23호까지 나왔다. 유관순 관련 글이 많이 실려 있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은 학술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자도서관(<https://www.nanet.go.kr/>)이었다. 각각의 사이트에서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요 주제어, 예컨대 여성 독립운동(또는 민족운동),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예컨대 남자현, 김마리아 등<sup>31)</sup>), 여성 독립운동 단체 이름(예컨대 근우회 등) 등을 입력해 최근까지의 관련 논문과 저작을 검색했다. 먼저 여성 독립운동 관련 논문이라고 인정되는 논문은 모두 221편인데 발표 시기별로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sup>32)</sup>

**<표 2> 시기별 여성 독립운동 관련 논문 건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
1	6	10	4	33	63	104	221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독립운동 연구는 불모의 영역이었다.<sup>33)</sup> 1950년대 나온 단 1편의 글도 본격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3·1운동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최은희가 여성 대상의 대중잡지에 기고한 것이다.<sup>34)</sup> 1960년대에는 정세현, 정요섭, 박용옥이 여성 독립운동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사에서 펴낸 논문집<sup>35)</sup>에 「3·1운동 이전의 여성운동」(박용옥), 「3·1운동과 여성」(정요섭), 「3·1운동 이후의 여성운동」(이태영)의 3편이 실린 것은 특기할 만하다. 숙명여대에 재직하고 있던 정세현과 정요섭은 남성 연구자이면서도 여성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후에도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원래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전공한 박용옥이 1968년에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문제에 천착한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 독립운동 논문을 발표한 이래 40년 이상 대표적인 1세대 전공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sup>36)</sup>

31) 현재까지 여러 이유(해방 이후 좌익 활동, 관련 자료 부족 등)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한 여성은 당연히 포함시켰다. 아울러 나중에 친일로 변절했다고 하더라도 한때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예컨대 박인덕, 황신태 등)에도 포함시켰다.

32) 학계 안팎의 상황 변화와 연동해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단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했다.

33) 해방 이전에 최용신의 삶을 정리한 책이 나왔고 해방 이후에도 유관순과 김마리아의 삶을 정리한 책이 나왔지만 모두 사실에 근거한 평전이라기보다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위인전류의 책이었다. 유달영, 『최용신 소전』(성서조선사, 1939); 전영택, 『유관순전』(수선사, 1948); 박화성, 『타오르는 별: 유관순』(문림사, 1960); 김영삼, 『김마리아전』(중앙문화사, 1965) 등을 볼 것.

34) 최은희, 「삼일운동과 여성」, 『여성계』, 7(3)(1958)

35) 동아일보사 편,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동아일보사, 1969)

36) 내가 파악한 바로는 모두 19편의 여성 독립운동사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여성독립운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한국 여성항일운동사 연구』(지식산업사, 1996);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홍성사, 2003); 『여성운동』(독립기념관

1970년대에는 박용옥, 정요섭, 정세현 외에도 이현희(성신여대 재직), 노영택(효성여대 재직), 신영숙(이화여대 석사 졸업37))이 새로 등장했다. 그 결과 모두 10편의 여성 독립운동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다시 4편으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역사학계를 포함해 인문·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자 세대가 등장하면서 연구 주제나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여성 독립운동 연구는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이하다.<sup>38)</sup> 1987년을 전후해 민중사의 영향으로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었을 때조차 여성에 관한 관심은 드러나지 않았다. 예컨대 1989년 3·1운동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가 함께 펴낸 기념논문집<sup>39)</sup>에는 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논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책에서 3·1운동의 주체로 주목한 것은 민중이었지만 민중의 범주는 ‘지식인·청년학생, 농민, 노동자, 소부르주아지, 양반유생’에 국한되었다.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한 1969년에 나온 기념논문집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 독립운동 연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먼저 논문 편수가 4편에서 32편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문·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여성 연구자가 늘어나고 아울러 각종 전문학회(연구회 포함)가 내는 학술지가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여성(사) 연구를 표방하는 학회나 관련단체가 내는 여성(사) 전문 학술지가 늘어난 것도 여성 독립운동 연구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40)</sup>

1980년대 이후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새 지평이 열렸다. 1987년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인문·사회과학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바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연구자들은 여성 독립운동 연구가 활기를 띠는 데 주역이 되었다. 원래 한말 계몽운동을 전공한 이송희<sup>41)</sup>가 이 시기에 여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등의 저작을 냈다.

37) 신영숙, 「근우회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 16(1979) 이 논문은 1978년에 이화여대에 제출한 같은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38)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던, 당시로서는 젊은 한 여성 연구자가 이후 연구자 세대의 관심을 반영하는 글을 1989년에 여성 문제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애숙, 「정종명의 삶과 투쟁」, 『여성』, 3(1989)

39)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청년사, 1989)

40) 한국여성학회가 1993년부터 펴내는 『한국여성학』,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1999년부터 펴내는 『여/성이론』, 한국여성사학회가 2004년부터 펴내는 『여성과 역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옛 한국여성개발연구원)이 2006년부터 펴내는 『젠더리뷰』 등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41) 이송희가 1986년에 이화여대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은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이다.

독립운동으로 관심을 확대해 박용옥에 이어 여성 독립운동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 독립운동에 젠더사의 관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이지원이 1991년에 첫 여성 독립운동 관련 글을 발표한 것도 주목된다.<sup>42)</sup> 1987년에 역사연구의 대중화를 내걸고 첫 호를 낸 이래 대표적인 대중 역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던 『역사비평』 지면을 통해 그동안 외면 받던 허정숙, 박진홍, 지하련 같은 사회주의 계열 여성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sup>43)</sup>

2000년대에는 다시 논문 편수가 2배가량 늘어났다. 2010년대에는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황금기가 열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논문 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모두 10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8년에 21편, 2019년 상반기에 이미 14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실제 연구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최대 한국사 연구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를 표방하며 올해 펴낸 5권의 『3·1운동 100년』 총서<sup>44)</sup>에 실린 49편의 글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을 다룬 글이 1편에 그친 것이 아쉽다. 특히 이 작업에 참가한 여성 연구자가 모두 10명이고 이들이 쓴 글이 모두 13편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 크다.

2019년 현재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1세대가 더 이상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연구자 세대의 등장을 알린 신영숙, 이송희에 이어 강영심, 이상경(국문학 전공), 윤정란, 김성은 등이 꾸준히 여성 독립운동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구자의 저변이 더 넓어지고 있다. 특히 남성 연구자의 여성 독립운동 연구 성과가 계속 나오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sup>45)</sup> 나는 1993년에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에서 펴낸 『한국여성사-근대편』(풀빛, 1991)의 서평을 쓰면서 여성사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성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sup>46)</sup> 여성사 연구는 여성 연구자만의 몫이 아니다. 독립운동에 남녀가 따로 없었듯이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남녀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sup>47)</sup>

42) 이지원, 「1920년대 여성운동의 이념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9(국사편찬위원회, 1991)

43) 서형실, 「허정숙 -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 『역사비평』, 19(1992); 오미일, 「박진홍-비밀지하 투쟁의 레포토 활약」, 『역사비평』, 19(1992); 장윤영, 「지하련-여성적 내면의식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으로」, 『역사비평』, 40(1997)

44)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3·1운동 100년 1-5』(휴머니스트, 2019)

45) 2017년과 2018년에 나온 『여성과 역사』 26호와 28호에 박순섭의 「1920-30년대 정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과 김명섭의 「1920년대 한인 의열투쟁과 여성」이 각각 실린 것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46) 이준식, 「여성사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창작과 비평』, 21(1993), 431-435쪽.

47) 물론 최근 여성 독립운동 연구에 젠더사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남성 연구자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독립운동에서 주로 다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1980년대까지의 여성 독립운동 연구에서 단골 주제는 3·1운동과 근우회였다. 1980년대까지 5편이나 차지하던 근우회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져 모두 6편의 연구 논문이 더 발표되었다. 이밖에도 초기에는 여성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글이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관심 분야가 크게 바뀌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주된 흐름을 이루게 되었고 이런 흐름은 현재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내가 조사한 221편의 글 가운데 개별 인물에 관한 글이 모두 102편을 차지한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개별 인물 연구인 셈이다. 개별 여성 독립운동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한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처한 현실이나 전체 독립운동 상황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개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성들이 모여 또는 남성들과 함께 단체를 조직하고 같이 행동하는 측면에 대한 조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움직임은 전체 독립운동의 흐름과 연결망 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연구 대상이 특정 인물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도 문제이다. 유관순(13편<sup>48</sup>), 최용신(9편), 김마리아(7편), 허정숙(7편), 나혜석(6편), 박차정(6편), 윤희순(6편), 차미리사(5편), 하(김)란사(4편) 등 9명에 관한 논문만 해도 모두 63편에 이른다. 연구 지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 중심으로 여성 독립운동을 다루는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중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다루는 논문<sup>49</sup>,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는 인물을 다루는 논문<sup>50</sup>이 크게 늘어나는 것만은 고무적이다. 특히 후자와

48) 유관순을 다룬 글은 이보다 훨씬 많다. 다 합하면 100여 편에 이른다. 그렇지만 문화상품으로서의 유관순을 주제로 한 글이 여러 편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유관순의 삶과 활동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유관순의 평가와 활용에 초점을 맞춘 글이 대부분이다. 이런 글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모두 배제했다. 유관순의 짧은 삶에 비추어 볼 때 논문의 외형을 갖춘 글이 100여 편에 이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49) 부끄럽지만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논문에서 다룬 인물 가운데는 나로서도 생소한 경우가 여럿 있었다. 이는 역으로 여성 독립운동사 연구의 범주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0) 대표적인 보기가 허정숙과 나혜석을 다룬 13편의 글이다. 이밖에도 강영심 「이화립, 조선의용대 여성 대원」, 『여/성이론』, 11(2004); 김성은, 「신여성 윤정원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7(2013); 김수자, 「1920·1930년대 『신여성』 여성기자의 여성담론 구성방식: 허정숙과 송계월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2015); 박순섭, 「1920-30년대 정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26(2017); 박정애, 「어느 신여성의 경험이 말하는 것-여기자 송계월」, 『여성과 사회』, 14(2002); 백옥경, 「1920년대 김순복의 여성계몽운동과 여성해방인식」, 『이화사학연구』, 55(2017); 오미일, 앞의 글; 윤정란, 「일제강점기 경남 통영지역 최덕지의 민족운동과 신사참배반대운동」, 『역사와 경계』, 52(2004); 이꽃메, 「한신평: 한국 근대의 산파이자 간호부로서의 삶」, 『의사학』, 15(2008); 이꽃메, 「일제강점기 산파 정중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21(3)(2012);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경성 품그룹 관련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10(2006); 이애숙, 앞의 글, 3; 장운영, 앞의 글; 진선영, 「송계월 서사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독립운동 방략이나 지역에 따라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주나 러시아의 여성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sup>51)</sup>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sup>52)</sup> 여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sup>53)</sup> 직업에 따른 여성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sup>54)</sup> 임시정부나 의열투쟁 등 독립운동 방략에 따른 여성 독립운동을 다룬 논문<sup>55)</sup> 등이 대표적이다.

방미화와 현청하 논문에서 거론된 32명의 만주 조선인 여전사(홍혜순, 김영신, 문두찬, 최금숙, 김순희, 이숙, 황정신, 김정옥, 최희숙, 이계순, 박정자, 김정길, 김정숙, 안순화, 이어순, 허성숙, 김인수, 박녹금, 박수환, 오철순, 이부평, 박영자, 주신옥, 임정옥, 허현숙, 안순복, 이근숙, 김백문, 김옥선, 이영근, 신연옥, 이재덕)<sup>56)</sup>나 강수옥의 논문에서 언급된 우봉운, 황지영, 훈춘애국부인회(주식덕, 김숙경, 권정숙, 오신애, 김순희, 황영은), 조숙정, 중국공산당 동만 특별위원회 부녀위원(이정숙, 최상화, 홍혜순, 장정숙, 강진주), 김영신, 김순일, 이정순, 이숙, 허숙, 이어순, 최선일, 김경숙, 김영희, 황순옥, 김인애, 김정길<sup>57)</sup> 등은 여성 독립운동의 외연

연구, 『여성문학연구』, 34(2015); 한금순, 「강평국의 3·1운동 참여와 수감」, 『제주도연구』, 51(2009) 등을 볼 것. 다만 정종명은 2018년에 뒤늦게 서훈되었다.

- 51) 강수옥, 「1900~1945년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 여성들의 항일운동」, 『여성과 역사』, 29(2018);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1909~1920」, 『역사문화연구』, 23(2005); 방미화·현청하,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만주 조선인 여전사의 항일운동」, 『한국민족문화』, 69(2018)
- 52) 강윤정, 「일제강점기 경북 여성의 민족운동: 국내활동을 중심으로」, 『유학과 현대』, 15(2014); 강정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3·1만세운동: 기독교 여성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723(2019); 박미현,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과 리더십」, 『젠더리뷰』, 38(2015)
- 53) 강혜경,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2010); 김명숙, 「1920~1930년대 동덕여고보의 항일학생운동」, 『젠더연구』, 14(2009); 오미일,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항도부산』, 37(2019)
- 54) 김려화, 김미영,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연구」, 『간호행정학회지』, 20(4)(2014); 김양섭, 「일제 강점기 인천 성냥공장 여성노동자의 동맹파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2014); 김중순, 「근대화의 담지자 기생 1-대구지역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학논집』, 43(2011); 김중순, 「근대화의 담지자 기생 2-대구지역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학논집』, 47(2012);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1920년대~19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201』, 9(2)(2006); 이동근, 「1910년대 '기생'의 존재양상과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2013);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이화사학연구』, 30(2003)
- 55) 김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1932-1945」, 『역사와 경계』, 68(2008); 김성은, 「상해 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 29(2018); 문영숙, 「임시정부와 여성독립운동가」, 『젠더리뷰』, 52(2019); 윤정란, 「일제말기 한국광복군 여성대원들의 활동양상」, 『여성학논집』, 23(1)(2006); 이상경,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경성 품그룹 관련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평등연구』(2006); 이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2009)
- 56) 방미화·현청하, 앞의 글.

확장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명섭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의열투쟁을 다루면서 거론한 강향란, 이소흥, 김선희, 전정화, 현계옥, 이규숙(이회영의 딸), 김정길<sup>58</sup>)이나 김성은이 상하이를 다룬 일련의 논문에서 거론한 이선실, 강천복, 박인선, 김연실, 오남희, 이봉순, 강현석, 이메리, 정애경, 김일사, 김희원, 이운선, 박영봉, 강영파(유진동의 부인), 신명호(민필호의 부인), 최준례(김구의 부인), 안봉순,<sup>59</sup>) 그리고 이상경이 경성품그룹을 다룬 논문에서 거론한 박진홍, 이순금, 임순득, 조숙현, 김운라, 이경선, 김영원, 이종희, 박선숙, 김재선, 임양려, 이현우, 이경희, 강귀남, 남남덕, 정순년<sup>60</sup>) 등도 아직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인물을 연구하더라도 그 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학술지는 아니지만 시사잡지를 통해 소개된 미서훈 여성 독립운동가(김명시, 이관린, 안성녀 등)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필요하다.

독립기념관은 전국의 각급 학교와 공공도서관, 문화원, 관람단체, 그리고 개인 구독회원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 홍보지 『월간 독립기념관』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여성 독립운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2013년까지는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2014년부터는 제 궤도에 올라 매 호마다 2쪽 정도의 짧은 글을 통해 여성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 대상만 간단히 정리하면 2005년 최용신, 2006년 박차정, 최용신, 정정화, 이애라, 2007년 국채보상운동, 이병희, 조신성, 2011년 루씨여학교, 박차정, 2012년 나혜석, 꺾낙원, 지복영, 백선행, 2013년 차경신, 최송설당, 나혜석, 조화벽, 기생 앵무, 권기옥, 김정혜, 조신성, 방순희, 박차정, 백선행, 하란사, 이혜수, 김로득, 주아이보우(朱愛寶), 윤희순, 2015년 지복영, 연미당, 안경신, 김경희, 김알렉산드리 페트로브나, 안경신, 강기일, 김성무, 장선희, 이일정, ‘을사늑약에 분개한 아낙네들’, 최은희, 2016년 오인성(이재명 부인), 남자현, 이화숙, 이희경, 전월선, 이애라, 정현숙, 백선행, 신정숙, 김락, 의기 산홍, 정칠성, 2017년 이신애, 김순애, 윤희순, 김아려(안중근 부인), 신의경, 이병희, ‘독립투사를 도와준 기생’, 권성녀, 조마리아, 김필레, 김두석, 이아주, 가네코 후미코, 이혜경, 2018년 이효정, 김마리아, 김향화, 오건혜, ‘해주 기생’, 정명여학교, 김귀남, 연미당, 황마리아, 2019년 이해련, 김마리아, 김순애 등이다. 본격적인 연구 논문은 아니지만 짧은 글을 통해서라도 여성 독립운동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 큰

57) 강수옥, 앞의 글.

58) 김명섭, 앞의 글.

59) 김성은, 앞의 글(2008); 앞의 글(2018)

60) 이상경, 앞의 글.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아직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가네코 후미코[2018년 서훈], 강기일, 권성녀, 김로득, 김성무, 김아려, 김정혜, 김필례, 백선행, 산홍, 앵무, 오인성, 이일정, 최송설당)의 활동을 소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 연구는 앞으로 더 활기를 띠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고 정부도 여성 독립유공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여성 독립운동 연구에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여성 독립운동 연구가 여성 연구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최근 여성주의 또는 젠더사의 관점을 강조하는 연구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sup>61)</sup> 여성 독립운동이 민족해방을 통한 여성해방 또는 남녀평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젠더사의 관점이 강조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도 있다.

내가 역사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세대가 공감하던 문제의식이 있다. 연구와 실천의 결합 또는 실천적 역사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자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사 연구에서 기본 전제가 되었다. 물론 세상이 바뀌면서 실천이라는 말의 뜻도 바뀌었다. 그러나 역사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자는 문제의식 자체는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여성 독립운동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독립운동 연구는 한편으로는 현실의 여성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도움의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그에 따른 서훈 추진이다. 물론 서훈 자체가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 독립운동 서훈이 전체 독립운동 서훈의 3%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독립운동 연구는 독립유공자 서훈과 이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 독립운동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기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부나 학회 차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에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하는 등 여성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이 점점 체계를 갖추어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국회도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도 결국에는 학계의 전문역량과 이어져야 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한국역사연구회는 지금까

61) 대표적인 것으로 노지승 (2016), 「젠더, 노동,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각성의 순간-여성 사회주의자 정철성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43; 방미화현청하, 앞의 글; 소현숙 (2019), 「3·1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학논총』, 51; 이지원 (2019), 「젠더사로 읽는 3·1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74

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역사연구와 교육으로 인해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 공동으로 '3·1운동과 여성, 불꽃같은 삶'이라는 시민강좌를 열었다. 서울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이 강좌에서는 김마리아, 권애라, 김향화, 박자혜의 삶과 투쟁이 소개되었다. 두 기관은 곧 이 강좌의 내용을 대중교양서로 엮어 펴낼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아니 확대될 것이다.

국제 심포지엄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발표1

일제시기 국내 항일 여성운동 연구사 검토

이 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



# 일제시기 국내 항일 여성운동 연구사 검토

이 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행사들이 열렸다.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 3월 3·1운동 100돌을 맞아 75명의 여성독립운동가가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았다. 한 번에 서훈받은 여성독립운동가 숫자로는 역대 최대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여성독립유공자는 357명에서 43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체 독립유공자 15,511명 가운데 2.7%에 불과하여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항일독립운동가의 ‘발굴’은 없었던 여성독립운동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항일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연구 없는 발굴 없고, 연구 없는 기억은 없기 때문이다. 항일여성독립운동을 발굴·기억하기 위해 그동안 항일여성독립운동 연구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역사 연구에서 여성을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과 연구는 미진했다. 특히 식민지시기 항일독립운동 연구에서 남성 중심의 관점과 연구로 인해 식민지 근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삶과 항일운동은 보편사로서 연구되지 않았다. 역사연구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의 영역이고, 새로운 역사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 일제시기 국내 항일여성운동 연구사를 검토하여 ‘발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내 항일여성운동사연구는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하고 근대여성사의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했다.<sup>1)</sup> 여기에서는 1910~193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에서 ‘항일’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1) 근대여성사의 관점에서 연구를 검토한 것으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최숙경, 「한국 여성사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시민강좌』 15, 1994 ; 박용옥, 「일제시기 여성인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인물사연구』 1, 2004 ; 이승희, 「한국 근대 여성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여성과 역사』 6, 2007 ; 홍양희, 「한국 근대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역사』 19, 2013 ; 김정인, 「한국 근대여성사 연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한국여성학』 32-2, 2016.

연구와 항일여성연구의 대표적 유형인 인물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항일여성운동 연구의 진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1910년대 항일여성운동

1910년대 항일여성운동의 중심 주제는 3·1운동이었다. 3·1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에 여성은 없었지만, 3·1운동의 현장에는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다. 여학생을 비롯하여 교사, 부인, 간호사, 기생 등 각계 각층의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고, 1919년 한 해에 만세운동으로 검거된 여성은 471명에 이르렀다. 사회적 연약 계층으로 취급받던 여성들은 3·1운동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었다. 일제시기 당시에도 “조선신진여성으로서 정치적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때를 최초라고 하야도 과언이 아니다”<sup>2)</sup>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은 사회적 주체로서의 대두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제하 최대의 독립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주목되었고, 3·1운동은 항일여성운동사에서 대표적인 연구주제가 되었다.

3·1운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된 논문집,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에서는 「3·1운동 이전의 여성운동」(박용옥), 「3·1운동과 여성」(정요섭), 「3·1운동 이후의 여성운동」(이태영) 등이 수록되면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여성들의 3·1운동에 관한 인식 틀이 형성되었다.<sup>3)</sup> 이후 1971년 정요섭의 『한국여성운동사』<sup>4)</sup>, 1979년 3·1운동 60주년을 기념하여 3·1여성동지회에서 간행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등을 통해서 여성들이 참여한 3·1운동의 실태가 보다 구체화되었다.<sup>5)</sup>

이러한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박용옥은 3·1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여성들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며, 개성 부산, 해주, 천안 등지에서는 여성이 주동적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 주역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하였다.<sup>6)</sup> 거족적인 3·1운동에서 여성도 민족의 일원임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2) 「조선여성운동의 사적고찰」 『동아일보』 1928.1.6.

3)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4)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1971.

5) 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여성동지회, 1980

이후 3.1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 실태와 역할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3.1운동에 대한 역사해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학계에서 수용되지는 않았다. 2009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출간한 60권짜리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의 3·1운동은 『여성운동』 편에 실렸다.<sup>7)</sup> 독립운동사에서 부분적으로 빠진 여성을 채워 넣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적인 경향이다.

2000년대 이후 식민지시기에 대한 사회사, 문화사, 일상사 등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신여성’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sup>8)</sup> 3·1운동 연구에도 젠더사적 분석이 일부 시도되었다. 2009년 3·1운동 90주년을 기념하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한 『1919년 3월 1일에 묻다』에 실린 정종현의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이 참여한 3.1운동의 실태연구라기 보다는 기억문화로서의 여성 3.1운동에 대한 연구였다. ‘신여성’연구 등 여성사연구가 운동사적 맥락에서 연구를 확장하는 노력은 미흡했다. 여성사나 젠더사의 관점에서 항일여성운동이 민족사의 보완사·보조사(compensatory history)<sup>9)</sup>가 아니라 여성사로서의 복원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민족으로서의 식민지기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일상적인 모습이 구명될 때 항일여성운동이 복원은 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젠더사의 관점에서 여성의 3·1운동을 보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지원은 3·1운동에서 여성들의 만세시위 준비, 시위, 감옥생활 등을 통해 민족적·젠더적 정체성을 체화해갔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식민지 젠더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가 되어갔음을 설명했다.<sup>10)</sup> 소현숙은 ‘여성’이라는 범주가 형성된 것 자체가 근대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정체성을 강조하고 3·1운동을 통해 여성이 정치적 주체로 진입해 가는 것에 대해 고찰했다.<sup>11)</sup>

6) 박용옥, 「3.1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461~492쪽.

7) 박용옥,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8) 홍양희, 앞의 글.

9) 김정인, 앞의 글, 186쪽.

10) 이지원, 「젠더사로 읽는 3·1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72, 2019.

11) 소현숙, 「3·1운동과 정치주체로서 ‘여성’」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 5.사상과 문화』, 휴머니스트, 2019.

### 3. 1920~30년대 항일여성운동

#### 1) 교육계몽운동

1920년대 항일여성운동은 3·1운동이후 여성의 사회적 각성과 조직의 결성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이념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병존하며 운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다양한 갈래들이 항일여성운동이 있었다. 1920년대 여성항일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교육계몽운동, 애국부인회운동, 여성민중운동, 근우회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sup>12)</sup>

1920년대 각종 여성단체들이 등장하였는데, 초기에 가장 많은 활동은 여성교육계몽운동이었다. 이것은 당시 여성개조를 위한 여자청년회, 기독교여자청년회 등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박용옥, 최은희, 천화숙, 윤정란, 이송희 등은 여성교육계몽운동이 기독교 여성운동과 밀접하게 이루어졌으며, 실력양성적 자기계발과 여성의 지위향성을 위한 민족운동으로 파악하였다.<sup>13)</sup> 교육계몽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한 인물연구로 차미리사, 황애덕, 고헌경 등에 대한 연구도 기독교여성운동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sup>14)</sup> 이 연구들은 이들 여성들이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는지를 알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연구되었다. 일제시기 여성 교육사업과 교육운동의 업적을 남긴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되었고, 기독교가 여성운동에 미친 영향 등과 관련하여 연구 성과도 많이 양산되었다.

#### 2) 근우회운동

근우회는 1920년대 항일여성운동의 최 정점에 있던 단체로 1927년 결성되어 서울에 중앙본부회관을 마련하고 전국에 지부를 둘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항일여성운동 연구에서 근우회는 중요한 주제로 언급되었다. 근우회의 활동과 이념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12) 이지원, 「1920년대 여성운동의 이념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13) 박용옥, 「1920년대 한국여성단체연구」 『한국근대여성연구』, 숙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 최은희, 『한국근대여성사(하)』, 1990, 194~214쪽 ; 천화숙, 『한국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해안, 2000 ;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 국학자료원, 2003, 78~98쪽 ; 이송희, 「일제하 여성운동의 전개- 계승과 변화를 중심으로」 『유관순연구』 5, 2005.

14) 박용옥, 「차미리사 - 근화여학교 설립하여 여성실업교육 실시」 『한국역사속의 여성인물 하』,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신영숙,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생활과 활동양상」 『한국여성학』13-1, 1997 ; 한상권, 2008 앞의 책 ;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승실사학』22, 2009 ; 김성은, 「일제시기 고헌경의 여성의식과 가정·사회·국가관」 『한국사상사학』36, 2010.

계열이 중심이 된 운동이라고 보는 평가,<sup>15)</sup>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협동전선이라고 보는 평가,<sup>16)</sup> 민족협동전선을 주도한 것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발전을 기반으로 했다는 평가<sup>17)</sup> 등으로 연구되었다. 1920년대 독립운동의 조건 변화와 이에 따른 운동방략으로 사회주의의 등장은 중요한 주제인데, 오숙희, 남화숙, 박혜란<sup>18)</sup> 등의 연구로 본격화되었으나, 그 후 여성사나 독립운동사 양측에서 연구가 진전되지는 못했다. 좌우합작운동으로서 근우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연구회의 『한국여성사-근대편』(1992)과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여성운동』(2009)에서 개설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근우회의 지방지회에 대한 연구는 호남 지방<sup>19)</sup>, 동래지회<sup>20)</sup> 등이 있다. 근우회의 활동에 대한 개별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우회에 참여했던 사회주의여성운동가 박차정, 허정숙, 정종명, 정칠성 등 인물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sup>21)</sup>

### 3) 여성 민중운동

일제시기 대다수 여성들의 삶은 농민이나 노동자라는 경제적 계급적 범주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제 강점이후 항일여성운동에서 노동자 농민으로 삶의 현장에서 항일의식과 항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식민지 경제구조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항일운동은 1973년 「일제하 여성근로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sup>22)</sup> 이후 방직공장과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여성항일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sup>23)</sup> 한국여성연구회의 『한국여성사-근대

---

15) 박용옥, 「근우회의 여성운동과 민족운동」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16) 신영숙, 「근우회에 관한 일연구」 『이화사원』 16, 1979 ; 송연옥, 「1920년대 조선여성운동과 그 사상 - 근우회를 중심으로」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연구』, 거름, 1984  
 17) 오숙희, 「한국여성운동에 대한 연구」 『여성학논집』4, 1987 ; 남화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5, 1991 ; 이지원, 1991, 앞의 글 ; 장인모, 「1920년대 근우회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142, 2008.  
 18) 박혜란,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19) 윤선자, 「호남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2004.  
 20) 김정희, 「일제하 동래지역 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소고 : 근우회 동래지회를 중심으로」 『문화전통논집』 4, 1996.  
 21) 이송희, 「박차정여사의 삶과 투쟁」 『지역과 역사』1, 1996 ; 강영심, 「항일여성운동가 박차정의 생애와 투쟁」 『여성이론』8, 2003 ; 서형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 사회』3, 1992 ; 신영숙,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내일을 여는 역사』 23, 2006 ; 이꽃매, 「일제강점기 산파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21-3, 2012 ; 박순섭, 「1920~30년대 정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26, 2017.  
 22) 이대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2, 1973.

편』에서 1924년 암태도부인회가 암태도소직투쟁의 조직적 지원과 참여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1930년대 여성노동운동, 여성농어민운동 등을 ‘일제 파쇼체제하의 민중여성의 생활과 여성운동의 발전’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생존권 투쟁에서 직업적으로 여성성이 전유된 것 가운데 하나는 해녀이다. 따라서 해녀의 생존권 투쟁은 여성사와 항일운동사가 가장 잘 드러났다. 제주 구좌면에서 일제의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에 저항한 해녀투쟁은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1995)과 박찬식의 연구<sup>24)</sup>가 있다. 제주해녀의 생존권 운동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여성들의 항일운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sup>25)</sup>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은 강주룡이다. 『한국역사속의 여성인물 하』(1998)에 소개된 이후 가장 대표적인 여성 민중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알려지고 중등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여성 사회주의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의 부족 만으로 탓하기에는 연구의 태도와 학계의 문제의식에 반성을 요한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연구논문이 아닌 전기적 소설 『체공녀 강주룡』(2018)이 출간되어, 관심있는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4. 항일여성 인물연구

인물연구는 항일여성운동 연구의 대표적인 주제이다. 인물연구는 항일여성운동가의 공헌을 기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었기에, 현재 가장 대중적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인물연구의 대중서들이 양산되었고,<sup>26)</sup> 2018년 보훈처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전시, 국립여성사전시관의

23) 서형실, 「식민지 시대 여성 노동 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25, 1990 ;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1』, 한울아카데미, 2002 ;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이화사학연구』 30, 2003 ; 강이수,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011.

24) 박찬식,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연구』 30, 2007.

25) 박용욱, 2009. 앞의 책.

26)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역사속의 여성인물 하, 항일독립운동기』, 한국여성개발원, 1998 ; 박용욱,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 강대민, 『여성조선의용군 박차정 의사』, 고구려, 2004 ; 엄찬호, 『江原女性 抗日獨立運動史』, 광복회 강원도지부, 2008 ; 한상권, 『차미리사 평전』, 푸른역사, 2008 ; 박재형, 『수도자의 삶을 살다간 독립운동가 제주교육의 선구자 최정숙』, 도서출판 각, 2009 ;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정인, 2009 ; 윤정란, 『서복을 호령한 여성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09 ; 신명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역사공간, 2010 ; 이정은, 『유관순: 3.1운동의 열』, 역사공론, 2010 ; 권광욱, 『권애라와 김시현』, 도서출판 해돋이, 2012 ; 박한설, 『강원여성독립운동』,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2013 ; 김일옥,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상수리나무, 2013 ; 이무성, 『나는 여성독립운동가』

3·1운동100주년 기획전시 등도 인물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인물연구의 물꼬를 튼 것은 3·1운동에 참여했던 항일여성운동가들의 회고와 증언이었다. 『여성동아』 1971년 3월호 별책부록 『己未年 햇불 든 女人们아아 三月』에 실린 증언과 인물연구가 시작이었다. 이후 경성여고보의 3·1운동을 주도했던 최은희가 쓴 『한국여성개화열전』(1973년)에서 유관순, 황애덕, 박현숙, 조신성, 어윤희, 차미리사, 이애라, 이혜성, 안경신, 나혜석, 남자현, 최동화, 권기옥, 방순희, 김효숙, 곽낙원, 김순애, 박차정, 양한나, 김마리아 등 다수의 항일여성운동가를 소개하였다. 1967년 3·1운동에 참여했던 여성항일운동가들이 조직한 3·1여성동지회는 1979년 『한국여성독립운동사』를 발간한 이후, 2017년 3·1여성동지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여성독립운동가』를 발간하였다.<sup>27)</sup> 여기에서는 김마리아, 남자현, 곽낙원, 윤희순, 조신성, 안경신, 황에스터, 차경신, 유관순, 오광심, 지복영, 박차정, 이병희, 조마리아, 김락, 이해련, 조화벽, 정정화, 김순애, 김영순, 전창신, 권기옥, 연미당, 권애라,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부나, 이해경, 장선희, 이신애, 최수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 여성운동가 자신들이 글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남성중심의 역사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적인 기록과 자료가 많지 않다. 증언에 의존한 경우 사실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회고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자료이자 역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잘 알려진 회고록으로는 이은숙, 정정화, 한도신, 최선화 등의 것이 있다.<sup>28)</sup>

항일여성 인물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은 단연 3·1운동과 관련한 유관순이다.<sup>29)</sup> 그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 그래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유관순에게 최고등급의 서훈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2002년 천안의 백석대학교는 유관순연구소를 설립하고 『유관순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유관순 못지않게 인물연구가 많은 분으로는 김마리아가 있다.<sup>30)</sup> 일제 치하에서 항일운동을 지속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최초의

다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30인의 시와 그림, 알레빗, 2013 ; 심옥주, 『여성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알리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2016 ; 정운현, 『조선의 딸, 충을 들다 : 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일제와 맞서 싸운 24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인문서원, 2016 ; 이윤옥, 『서간도에 들꽃 피다 :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알레빗, 2016 ;

27) 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7.

28)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 西間島始終記』, 정음사, 1975 ;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 한도신, 『꿈 갖은 옛날 피 얹은 이야기』 들베개, 1996 ; 최선화·양우조, 『제시의 일기』, 혜음, 1999

29) 1948년 유관순기념사업회가 발족된 이후 숭모사업이 시작되었고, 전영택, 『순국처녀 유관순전』, 송문사, 1953, 박화성의 『타오르는 별』 문림사, 1960 등 소설적 전기가 발간된 이후 학술적인 연구가 이어졌다. 2002년 백석대학교의 유관순연구소는 『유관순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30) 김영삼, 『김마리아전』, 중앙문화사, 1965 ; 김옥선, 『빛과 수금의 삶, 김마리아의 생애』, 주간시민, 1978 ; 「김마리아 특집」 『나라사랑』 30, 1978 ;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여성의원이 된 김마리아는 가장 전형적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일생을 보여준 여성향일운동가로 부각되었다. 한편 2000년대 신여성 연구가 진전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물연구 된 사람은 나혜석이다.<sup>31)</sup> 특히 2012년 수원지역에 만들어진 나혜석 기념사업회가 『나혜석연구』를 발간하며 지역의 대표여성으로 나혜석이 부각되고 있다.

3·1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1920년대 교육계몽운동,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운동, 사회주의운동, 근우회운동, 여성민중운동 등을 전개하였는데, 인물연구는 주로 교육계몽운동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활동을 한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물연구는 개인선양의 기억문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 향일여성운동을 체계화 할 만큼 연구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연구라는 측면에서 유효한 연구 방법이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향일여성 인물연구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다. 새로운 연구라기 보다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인물소개에 머무는 수준이거나 각색된 내용들이 많다.

한편 향일여성인물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화컨텐츠 발굴 차원에서 그 지역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은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sup>32)</sup> 그러나 그것도 지역전체의 향일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대표적인 인물을 내세워 지역과 인물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sup>33)</sup>

## 5. 맺음말 - 국내 향일여성운동 연구의 과제와 전망

(1) 20세기 전반기 일제시기 향일여성운동 연구는 젠더사의 관점과 독립운동사의 관점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sup>34)</sup> 그 교차점의 종합적인 전망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향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연구된 사건이나 소재, 인물 중심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흐름을 잡고 체계화하고, 젠더사와 독립운동사의 전체상 속에서 향일여성운동사의 정립이

2003 ; 전병무, 『김마리아 ; 한국 향일여성운동계의 대모』, 역사공간, 2013 외 다수의 개별논문이 있다.

31)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승실사학』 24, 2010 ; 김경일, 「차이와 구별로서 신여성, 나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혜석연구』 1-1, 2012 ; 김복순, 「'조선적 특수'와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 『나혜석연구』 1-1, 2012 ; 김주용,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독립운동 지원활동 - 중국 안동(단동)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4, 2013.

32) 홍양희, 앞의 글, 88쪽.

33) 1996년의 『강원여성사』를 시작으로 『전북여성발전』(2000), 『광주여성발전』(2000), 『경기여성발전사』(2002), 『경북여성사』(2004), 『제주여성사 I, II』(2009, 2011),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부산여성사 I』(2009), 『충북여성인물사 I』(2015) 등이 각 지자체에서 간행되었다.

34) 이지원, 2019, 앞의 글.

필요하다.

- (2) 식민지시기 여성이 갖는 다양한 정체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항일여성운동연구는 ‘침략과 저항’이라는 구도에서 여성=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단일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을 민족의 일원으로서만 설정하여 남성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빠졌던 ‘여성’을 추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애국심’과 ‘민족의식’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식민지기 여성들이 선택한 주체적인 삶과 다양한 역동성을 설명할 수 없다. 자기 주체적인 삶의 선택과 행로 속에서 항일의 길을 가는 여성들이 갖는 다양한 정체성을 읽어내는 항일여성운동의 역사가 복원되어야 한다.
- (3) 여성이 근대적·식민지적 각성 속에서 실천했던 사회주의운동, 여성노동운동, 여성농어민운동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 갖는 항일운동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항일운동의 사상적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단되었던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농어민운동 등의 연구를 진전시키는 연구사적 의의를 갖기도 한다. 일제시기 항일여성운동가들은 두개의 국가로 쪼개지기 위해 항일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항일여성운동의 전체상을 복원하기 위해, 분단의 잣대로 항일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 (4) 다양한 영역의 항일여성인물의 발굴과 인물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인물연구는 사료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항일여성운동사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방법이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항일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일제시기에는 탄압으로 인해, 해방 후에는 남북대립과 냉전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다. 이들을 소환하고 역사의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남겨진 기록을 찾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역사는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인물 발굴을 위한 끈기 있는 사료수집과 지속적인 전문 연구가 필요하다. 잘 알려진 인물, 단편적인 인물 소개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을 넘어서는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 (5)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해외항일운동과 연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단의 시각으로 국내와 국외를 나누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료와 연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일제시기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정보와 활동의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연계되어 있었다. 국내를 넘어서는 활동공간을 염두에 두고 당시의 감각으로 항일운동의 현장성을 연계하여 사료의 폭도 넓히고 항일여성운동사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 심포지엄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발표2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

김 형 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

김 형 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1. 들어가는 말

대대적인 흥행몰이에 성공한 영화 ‘암살’은 한국독립운동사 이면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였다.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한 여러 작품이 상영되었거나 현재도 절찬리 상영 중이다. 이리하여 딱딱하고 ‘엄중한’ 독립운동사가 아니라 일상사로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영화가 지닌 대중성은 역사교육을 위한 시금석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지나친 표현일까.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전혀 좌절하지 않는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간 ‘산증인’임을 보여주었다.<sup>1)</sup>

광복70주년인 2015년에도 학술회의와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시 필자에게 눈길을 끈 부분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특별전시회였다. “역사의 현장에서 광복 70주년에 다시, 그리고 처음 불러지는 이름들”로 제목도 ‘돌아온 이름들’이었다. 광복70주년서울시기념사업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만열(李萬烈,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독립운동에 나선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현장에 있었다.”며 “한편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그들이 활동하게끔 가정을 지킨 무명의 여성들이 독립의 숨은 공헌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sup>2)</sup> 특별전 의미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여성가족부와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특별전시회였다.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야외전시장에서 “독립을 향한 여성영웅들의 행진”

1) 김형목, 「독립전쟁과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일상사-독립운동을 위한 지원 활동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전쟁과 유물』 7, 전쟁기념관, 2015.

2) 『연합뉴스』 2015년 8월 1일 「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부른다」: 『경향신문』 2015년 8월 4일 「영화 ‘암살’의 전지현처럼...여성독립운동가 266명의 이름을 부른다」.

이라는 주제였다. 전시는 1부 <구국의 횃불, 대한독립여자선언서>, 2부 <대한, 대한아! 내 너를 위해 영웅을 길렀도다>, 3부 <독립전쟁을 선포하다>로 구성되었다.<sup>3)</sup> 비록 전시 내용은 영성하고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만 여성독립운동가의 인생역정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로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었다. 주인공들은 아내·며느리·어머니·독립운동 동지로서 오늘날 ‘워킹맘’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퍼우먼’이었다. 그럼에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서는 극소수만 언급되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세계사 속에 우뚝 선 오늘날 대한민국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이들의 인생향로는 우리의 삶을 반추하는 ‘나침판’이자 ‘희망봉’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격언이기 때문이다.

국망(國亡) 이후 3·1운동에서 여학생은 물론 노파·주모까지 참여하는 등 민족해방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엄혹한 식민지배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위한 항쟁을 이끄는 에너지원이었다.<sup>4)</sup>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은 이와 맞물려 진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국외에 거주하는 여성들도 예외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임시정부 요인의 부인들 활약상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주목된다. 군자금을 모금하거나 대적(對敵) 심리 전에 앞장서는 한편 독립전쟁 전선에 직접 참여를 마다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한국광복군이나 조선의용대에서 활약은 대원들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sup>5)</sup> 사선을 넘나드는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등 독립군 여전사로서 거듭났다.

이 글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1920-30년대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개한 여성독립운동 연구 동향과 전망을 가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은 크게 중국 관내지역,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지역 구분하였다(참고문헌 참조). 이들은 시아버지나 남편 등 가족들 독립운동을 후원하거나 자녀

3) 여성가족부, 『유관순 열사 외 다른 여성독립운동가들도 아십니까(정책홍보자료)』, 2015.8 : 국립여성사전시관, 『독립을 향한 여성영웅들의 행진(도록)』, 2015.

4) 『신한민보』 1919년 4월 3일 「우리독립선언 당시에 왜병이 녀학싱을 만단으로 슈육」, 6월 7일 「세계자유서상에 처음보는 +만명 애국녀자의 大활동-미성년한 녀학싱들의 몸에 악형과 슈육을 더하여」.

5) 정혜주, 『날개옷을 찾아서, 한국 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 하늘자연, 2015 :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 장군』, 문학과 지성사 1995; 지복영(이준식 정리),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 이화림 구술(장완제·순정리 엮음, 박경철·이선경 옮김), 『이화림 회고록』, 차이나박, 2015 : 김형목, 『독립전쟁과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일상사-독립운동을 위한 지원 활동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전쟁과 유물』 7, 전쟁기념관, 2015.

교육 등을 도맡았다. 생계를 위하여 경제활동과 심지어 독립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는 모험도 마다하지 않았다. 헌신적인 활동은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였다. 물론 동지로서 부부의 인연까지 맺는 등 아름다운 ‘들꽃’으로 탄생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았다.<sup>6)</sup> 이 글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여성독립운동가들 인생역정이 새롭게 조명되는 조그마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 2. 중국 관내지역

일제강점기 여성 대부분은 가장(家長) 결정에 따라 국외 한인사회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잔인한’ 숙명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언어 불통에 따른 소통 부재는 수많은 난관과 더불어 엄연한 현실로서 다가왔다. 중국 관내지역 여성항일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되면서 활성화되는 계기였다.

국내 신여성들은 원대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각지에 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 임시정부에도 대표를 파견하는 등 상하이 여성들로 하여금 애국부인회 조직을 촉진케 하였다. 7월에는 김순애 발기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다. 상하이 애국부인회에 대한 1970년대 초반 임시정부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sup>7)</sup> 당시 여성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일정한 관계로 국내 항일세력과 연계나 활동 영역 등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회원들은 자수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금액을 임시정부에 보냈다. 9월에는 조직부서와 임원진을 선출했다. 임원진은 회장 이화숙, 부회장 김원경, 총무 이선실, 서기 이봉순·강현석, 회계 이메리·이교신, 출판부 조숙경 등이었다.<sup>8)</sup> 국민대표회의 때는 애국부인회 대표로 김순애를 파견하는 등 임시의정원 의원에 김마리아가 임명될 만큼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다는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적십자 간호원양성소에도 김순애와 이화숙을 파견하여 수시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정을 알리고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여성단결과 협력을 위한 방안은 김경희·이의순·하란사의 추모대회를 열어 이들의 독립을

6) 김형목, 「전월순과 김근수, 독립전쟁 현장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다」, 『백범회보』 여름호, 백범김구기념관, 2015.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임시정부사)』 4, 1972.

8)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219~223쪽.

위한 헌신과 용기를 널리 알렸다. 김마리아가 상하이로 망명하자 성대한 환영회를 개최하는 등 단합을 과시했다. 독립자금 모금을 위한 가무극 연주회도 개최했다. 더불어 국제교류를 위한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하였다.<sup>9)</sup> 이와 더불어 여권 신장을 위한 목적도 병행되었다. 그런데 1920년대 일제의 탄압과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에 직면하면서 애국부인회 활동도 궤를 같이 하는 운명이었다. 경제적인 빈곤은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1928년 7월에는 애국부인회에 맞서는 한국여자구락부가 조직되었다. 임원은 회장 김희원, 부회장 이운선, 서무부 정옥실, 음악부 박영봉, 선전조직부 이용복 등이었다. 목적은 ①정치적·경제적 남녀평등 실현, ②생활의 개척을 위한 실천적 학술연구, ③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 등을 표방하였다. 1930년 광주학생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광주학생사건에 대하여’라는 격문을 돌리기도 했다.<sup>10)</sup>

1936년 7월에 난징에서는 조선부녀회가 창립되었다. 전조선 여자의 총단결, 민족혁명전선에 무장 참가, 남녀차별 철폐, 각국 부녀해방운동과 연계 등을 표방했다. 회장은 박차정과 이성실이 맡았다.

1940년 충칭에 임시정부는 8년 동안 이동기를 거쳐 안착하였다. 그리고 좌우 통합된 임시의정원이 구성되었다. 항일여성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1943년 봄에 한국애국부인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임원은 주석 김순애, 부주석 방순희, 조직부장 연미당, 선전부장 김윤택, 사교부장 권계옥, 훈련부장 정정화, 서무부장 최선화, 재무부장 강영파 등이었다.<sup>11)</sup> 이들은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투사와 임시정부 요인 등의 부인들이었다. 목적은 일제를 타도하여 완전한 민족해방을 성취하는데 있었다. 다음 7대 강령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sup>12)</sup>

- ① 국내 부녀들의 총단결하여 전 민족해방운동 및 남자와 일률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향유하는 민주주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공동 분투하기로 한다.
- ② 혁명적 애국부녀를 조직 동원하여 국내외 전체 부녀 동포의 각성과 단결을 촉성하며 나아가 전 민족의 총단결과 총동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 ③ 전 민족해방운동을 총영도하는 혁명적 권력 구조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한다.
- ④ 부녀의 정치·경제·교육·사회상 권리 및 지위 평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적극 분투하기로 한다.

9) 『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자, 10월 20일자.

10)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I-민족주의운동편, 원서방, 334·346·354쪽.

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임시정부사)』 4, 1972, 1031~1031쪽.

12)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224쪽.

한다.

- ⑤ 부인의 정치·경제·지식의 보급 향상과 문맹퇴치 및 문화수준의 제고와 특히 아동보육사업에 노력한다.
- ⑥ 직업상 부녀의 권리 및 지위의 남녀평등과 특별대우 향유의 획득에 노력한다.
- ⑦ 전 세계 반파시스트 부녀의 국제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전 세계 부녀의 해방과 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통 분투하기로 한다.

두렘한 목표의식과 광범위한 강령은 회원뿐만 아니라 충청지역 한인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회원들은 광복군을 지원과 아울러 부상병을 치료하는 등 동포애를 발휘했다. 또한 여성광복군으로 참전하여 대적 심리활동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관내지역 항일여성운동 연구는 단체와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하이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곽단체로서 국내 여성단체와 연계로 독립운동 운영자금 지원에 적극적이었다.<sup>13)</sup> 김순애·이화숙·김원경·이선실·오의순·박인선·강천복 등의 활동상으로 역사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다만 연해주나 미주지역과 연계 등에 의한 부분은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를 통한 항일운동에 투신한 인물은 김윤경·최형록·최서경·조용제·이순승·권기옥 등도 있었다.<sup>14)</sup>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방순희는 3·1운동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상하이로 망명했다. 1938년 임시의정원 함남 대의원에 선임된 이래 해방될 때까지 입법활동과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에는 임시정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러시아에 파견되어 외교활동을 맹렬하게 펼쳤다.<sup>15)</sup> 여권운동과 임시정부 선전부원으로 대적 선전활동에 나섰다.

민영숙은 1927년 상하이로 건너간 이래 인성학교를 졸업했다. 1942년 임시정부 법무부 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외무부 정보원으로 전근되었다. 대적방송에도 종사하는 등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했다. 민영주는 한국광복군에 입대하였다. 내무부 산하 심리작전 요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한국독립당원으로서 역할을 맡아 충실하게 실무를 처리하는 열성을 보였다. 엄기선·신효선·김효숙·김정숙 등도 이러한 유형에 소하는 항일여성전사들로 구분할 수 있다.<sup>16)</sup>

13) 김희곤, 「대한애국부인회」, 『대한민국임시정부 I-상해시기』-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45쪽.

14)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225~231쪽.

15) 최은희, 『추계 최은희 전집(한국여성사-하)』 3, 조선일보사, 1991, 266~269쪽.

16)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232~233쪽.

김효숙과 김정숙 자매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임시정부의 실무를 처리하는데 혼신을 다했다. 어머니 노영재는 25년간을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투사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등 뒷바라지에 힘썼다. 외중에도 한국혁명여성동맹의 결성 참여와 민족혁명당에 가입·활동했다.

장녀 김효숙은 중산대학을 졸업하고 동생 김정숙 등과 학생전시복무단을 조직하여 선전공작에 앞장섰다.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가입하여 대일선무공작과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는 한편 한인 아동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혁명여성동맹 부회장과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피선되었다.

김정숙은 막내딸로 중산대학 재학 중 학생전시복무단을 조직하는 등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한국독립당에 가입하고,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여 상임위원 겸 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광복군이 창립되자 여군으로 입대하여 대적심리공작과 이후 임시정부 교통부 비서, 의정원 비서, 법무부 비서 겸 총무과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광복군 총사령부 작전처 심리작전연구실 보좌관으로 전단작성·전략방송·원고작성 등을 수행했다.<sup>17)</sup>

임시정부 요원 뒷바라지와 안살림살이를 맡거나 자제들 교육에 종사한 경우이다. 홍순도, 노영재, 광낙원, 조마리아, 이국영, 정정화, 연미당 등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광낙원은 백범 김구의 어머니로 '독립운동계의 대모'였다. 1922년 상하이에 와서 1925년 안악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3년을 이곳에 머물렀다. 당시 임시정부는 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했다. 광낙원은 배추의 곁껍질을 모아 우거지 김치를 먹었다. 며느리가 1924년에 지병으로 사망하자 두 손자 인과 신을 길렀다. 그와 관련된 일화는 엄격함의 일단을 보여준다. 광낙원 생신에 정정화와 엄항섭 부인 연미당은 비단옷을 선물했다.

난 평생 비단을 몸에 걸쳐 본 일이 없네. 어울리지를 얹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나마 밥술이라도 넘기고 앉아있는 건 온전히 윤 의사의 핏값이야. 피 팔아서 옷 해 입게 생겼나. 당장 물러와.<sup>18)</sup>

이들은 대꾸조차 못하고 모직 옷으로 바꾸어드렸다. 난징에 생활할 때도 생신축하연을 베풀려고 하자, “돈으로 주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겠다”하고는 그 돈으로 권총 2자루를 사서 독립운동에 쓰라고 내놓았다.<sup>19)</sup> 엄격한 생활자세는 임시정부 요인 안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준엄

17) 「김봉준 지사 일가의 독립운동 이야기」, 『백범회보』 가을호, 백범김구기념재단, 2015.

18) 신명식, 「동요하는 상하이에서 내일을 준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64쪽.

한 사표(師表)였다.

정정화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행동에 옮겼다.<sup>20)</sup> 빈궁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자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교통국이나 연통제를 활용하여 세 차례나 국내 잠입을 감행하였다. 목숨을 걸고 철혹 같은 야음을 틈타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 원대한 독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한 용기가 필요했다.<sup>21)</sup> 이후에도 3차례나 국내에 들어왔다. 조그마한 쪽배로 의지한 결행은 혈기왕성한 청년조차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모험이었다. 20대 초반의 정정화는 스스로 자신 행동 방향을 선택하는 동시에 결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무수한 고초를 겪었으나 결코 좌절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sup>22)</sup>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갔을 뿐이다. 감내하기 힘든 난관조차도 장애물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녀들을 미래의 독립투사로 자라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41년 10월 임시정부 산하에 3·1유치원이 설립되자 연미당·이국영·강영파·김병인 등과 교사로 나섰다. 일제의 패망이 다가오자 귀국에 대비하여 한글교육을 강화했다. 한국애국부인회가 결성될 때 훈련부 주임을 맡은 이래 아동국어강습반을 조직하는 등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또한 개천절과 3·1절이나 국치기념일에 기념식 거행을 통한 대동단결을 도모하는데 앞장섰다.<sup>23)</sup> 『장강일기』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잔잔하게 그렸다. 정정화가 꿈꾼 세상이 무엇인가를 부분적이거나 보여준다.<sup>24)</sup>

연미당은 아버지는 충북 증평 출신으로 관립 외국어학교를 졸업한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였다. 1907년 이곳으로 망명한 그는 1926년 전장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중국 각지의 세관에서 공식생활을 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애국지사 집안에서 태어난 연미당에게 독립운동은 곧 일상이었다. 유년시절부터 독립운동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본 연미당은 자연스럽게 항일의식을 체득하였다. 일제가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하자 중국 당국은 다른 지역으로

19) 윤정란, 「곽낙원의 생애와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4, 백범학술원, 2006.

20) 김형목, 「정정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하다」, 『기록IN』 26, 국가기록원, 2014, 43쪽.

21) 정정화, 「임정의 밀령」, 『장강일기』, 학민사, 1998 : 신명식,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국경을 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유병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동교통국과 이룡양행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 김자동, 「어머니의 망명」·「어머니 국내 잠입활동」, 『상하이 일기-임정의 품안에서』, 도서출판 두꺼비, 2012, 36~39쪽과 42~44쪽 : 최범산, 「대한민국임시정부 안동교통국과 이룡양행」, 「압록강 아리랑-최범산의 항일유적 답사기」, 달과소, 2012.

22) 김형목, 「정정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하다」, 『기록IN』 26, 43쪽 : 김창희, 「항일독립운동의 꽃,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주인 정정화」, 『독립정신』 75,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4, 45쪽.

23) 정정화, 「태어나는 아이들, 떠나는 아이들」·「개천절과 3·1절은 잊지 않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106~110쪽.

24) 김형목, 「정정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하다」, 『기록IN』 26, 49쪽.

발령을 내었다. 엄항섭 아내가 된 연미당은 남편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임시정부 요인들 생활을 뒷바라지하였다. 홀로 지내는 요인들 식사와 일상생활을 챙기는 것은 연미당 몫이었다. 부부 인연을 맺어준 이동녕을 각별히 모셨다. 자싱 피신 당시 이동녕은 폐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는데 연미당의 극진한 간호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후 8년에 걸쳐 임시정부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이동녕은 1940년 3월 기강에서 숨을 거두었다.<sup>25)</sup> 이동녕을 마지막까지 간호한 사람은 바로 연미당이었다.

연미당은 애국지사의 딸, 독립운동가의 아내,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하였다. 결혼한 이듬해 상해여자청년동맹에 참여하여 항일격문과 전단을 제작·배포하는 등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임시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준비에 앞장섰다. 1938년 창사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을 준비하고 직접 연사로서 당당히 연설하였다. 3월 10일에는 도산 안창호의 서거 추도식에서 애도가를 불러 추도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sup>26)</sup> 임시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항일전선에도 뛰어들었다. 부부는 1938년 10월 결성된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원이 되어 선전과 홍보활동을 나섰다. 큰딸 엄기선은 어린 나이에도 엄마와 함께 청년공작대 공연에 참여하는 등 부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한국광복군으로 활약했다.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한 후 여성들도 1943년 2월 재건 한국애국부인회를 결성했다. 조직부 주임으로 방송을 통한 반일의식 고취와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중국국민당 협조로 대적선전위원회가 결성되자 연미당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일본군으로 동원된 한국인 병사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한인 사병들에게 일본군을 탈출하여 한국광복군에 동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 3. 중국 동북지역

이곳 독립운동 연구는 조동걸·윤병석·박영석·신용하 등 선학에 노력으로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 제기되면서 항일독립운동에 연구방법론이 모색되었다. 치열한 항일투쟁을 배경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동시에 일제의 지배정책도 고려해야 상황을 맞았다.<sup>27)</sup>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당안관에 소장된 자료 발굴 등으로 새로운

25) 김형목, 「부록 : 연미당」, 『여주독립운동사 개설』, 여주박물관, 2014.

26) 김형목, 「아름다운 인연 : 연미당 엄항섭 부부의 독립운동 이야기」, 『백범회보』 봄호, 백범김구기념재단, 2015.

전기를 맞았다. 현지 답사 등을 통한 현장성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오늘’의 관점에서 항일투쟁을 규명하는 원천이 되었다. 중견학자인 박환·장세윤·채영국·윤휘탁·신주백·황민호·김병기 등은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동북지역 항일운동은 초창기 연변대학교 역사학계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권립과 박창욱은 한민족이 이중의 성격과 투쟁강령, 이중의 사명을 지닌 특수한 처지에 있다고 파악했다. 이주한인들은 중국 관헌과 봉건수탈세력, 일제로부터 이중적인 통제와 탄압, 조국독립과 중국 해방을 위해 이중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지였다.<sup>28)</sup>

손춘일은 서간도지역이 연변지역보다 한인이주가 훨씬 빨랐음에도 연변이 조선족의 주요거주지가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서간도지역은 이미 한족과 만주족의 개간이 시작되었고 토지소유권이 없었다. 중국 관헌의 탄압이 심하여 법적 지위도 연변보다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변지역 항일투쟁의 중심지로서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규명했다.<sup>29)</sup> 나아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몰락한 한인들의 이주는 반일 의식이 충만된 집단임도 밝혔다.

빈궁한 생활 속에서 이주한인은 자제교육에 열성적이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타개하고 장차 독립전쟁에 전사를 양성함을 표방하였다.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서전서숙에 이어 명동학교 등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민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간민교육회는 의무교육 일환으로 각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했다.<sup>30)</sup> 이와 같은 변화는 3·1운동 이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승첩을 거둘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주한인 여성들도 항일투쟁에 투신했다. 이들은 국내와 달리 직접 무장투쟁에 헌신하는 등 전쟁에서 싸우다가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성과물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되었다.<sup>31)</sup> 학술서적이란 성격이 아니라 체제 유지와 선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1930년대 중국공산당계 항일투쟁 과정에 참여한 한인여성들 활동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증명한다.

27) 장세윤, 「만주지역 독립운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392 ~ 395쪽.

28) 권립, 「중국거주 한민족 역사의 특점에 대하여-이중적 성격과 이중적 사명을 중심으로-」, 『오세창교수 화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95 : 박창욱, 「조선족의 중국이주사」, 『역사비평』 15, 역사연구회, 1991.

29) 손춘일, 「중국 연변조선족 聚居區의 형성에 대하여」,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동간행위원회, 1992.

30) 박문일, 「1906 ~ 1919년 기간 중국 동북조선인민들의 사립학교 교육운동과 그의 역사적 열혈」, 『국사관논총』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31)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편, 『항일녀투사들』, 연변인민출판사, 1984 : 김재국 주편, 『중국조선족 항일녀투사들』, 료녕민족출판사, 1993 : 김양 주필, 『근대중국 조선족녀걸』, 북경민족출판사, 1995.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회나 약식 전기물 형태이다. 책마다 서술내용이나 다른 사례가 많아 역사적 사실로서 수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비판적인 고찰과 아울러 반드시 자료에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항일여성가들에 대한 풍부한 사실을 제시한 부분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항일녀투사들』은 20여 명에 달하는 항일여전사를 소개하였다. 이는 최초로 발행된 여성항일 운동을 정리한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크다. 다만 집필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자료 활용의 신빙성 등에 아쉬움을 남긴다. 한인여전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름진 고향의 논밭을 일제로부터 다시 찾아 쌀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명화, 우리 고향에는 기름진 논밭이 아주 많아. 이제 왜놈들을 쫓아내고 지주가 없어지는 날에는 인민들이 다 이밥을 먹으며 행복을 누리지 되겠지. 그때가 되면 우리들은 정말 이 처창츠 생활을 옛말로 외우게 될 거야...(하략)…<sup>32)</sup>

항일여전사는 동북지역 항일열사 중 1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은 험난한 항일전쟁에 참가한 배경과 정신 등을 고찰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중국조선족 항일녀투사들』은 이추악을 비롯한 44명의 항일여전사를 조명했다. 구술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거나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역사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대중국 조선족녀걸』은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 여전사 70여 명을 망라하였다. 관점은 사회주의계열 인물을 부각시키는 등 발간한 목적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sup>33)</sup>

『연변인민의 항일투쟁』에서는 연길시 항일열사 517명 한족은 5명뿐이고, 여성투사는 73명이나 되었다. 도문시는 188명 중 한족은 4명과 여성 20명이었다. 용정은 817명 중 한족 8명과 여성 108명 등이었다. 이들은 희생은 1932과 1933년에 집중되었다.<sup>34)</sup>

한편 국내에서도 항일여성운동과 관련된 성과물이 나왔다. 저자는 우당 이회영 아내인 이은숙 여사로 자신의 체험한 바를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문고 65』라는 제목으로 정음사에서 1975년 출판했다. 1981년에는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제목을 변경하여 중판되었다.

32)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편저, 『항일녀투사들』, 101 ~ 102쪽.

33) 장세윤, 「만주지역 독립운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432쪽.

34) 중공연변주위 당사사업위원회 편저, 『연변인민의 항일투쟁(자료집)』, 연변인민출판사.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은숙은 자신의 경험을 육필로 썼다. 내용은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기도 하나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당시 우당과 결혼한 여성이 처한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가군(우당)을 대할 제 하늘같이 앙망하고 스승같이 모셨는지라. 가군께서 “변창한 대소가를 혹시나 잘못할까. 전 소생 3남매에게 잘하고 친해하며 말없이 화목을 주장하라”하고 이르시던 말씀 지금도 어제 같도다.<sup>35)</sup>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과 결합한 한 젊은 여인의 심사를 엿볼 수 있다. 남편에게 재혼 전 부인과 소생이 있었다. 자식들과 화목이 이 집안에 큰 문제였고, 우당도 이를 염려했다. 여사는 남편의 걱정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말없이 떠났다. 이는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으로 여겼다.

박현옥은 항일무장투쟁기 중국공산당의 여성해방정책이 중국 동북지역과 유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부녀회의 사례를 들어 당원인 책임자와 회원인 농민여성 사이에는 여성해방과 계급문제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했다.<sup>36)</sup> 이는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중모순’의 담지자로서 항일여성운동을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족모순 극복은 곧 조국광복이자 중국 해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박용옥은 여성들의 항일무장투쟁은 초기에 취사나 재봉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접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역할 인식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sup>37)</sup>

한인여전사 활동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은 윤인순·남자현·허성숙 등을 들 수 있다. 국망 이후 환인현에 터전을 잡은 윤희순은 채인산과 중국인들 도움으로 동창학교 분교인 노학당을 설립·운영하여 50여 명에 달하는 인재를 양성했다. 시아버지·숙부와 남편·시동생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그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아들 유돈상은 어머니의 격려로 180여 명이나 모집하여 무순을 본거지로 조선독립단을 조직했다. 윤희순은 아들을 도와 일본군 주둔한 곳으로 들어가 강제로 징병된 조선청년들을 조선독립군으로 편입시켰다.<sup>38)</sup> 또한 자신과

35) 이은숙(이철우, 한홍구 교열), 『서간도 시종기』, 일조각, 2017, 57쪽.

36) 박현옥, 「만주 항일무장투쟁하에서 해성해방정책과 농민여성」, 『아시아문화』 9,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37) 박용옥,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 여전사 연구-30 여전사의 전기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5.

가족의 항일투쟁사를 『일생록』에 남겼다.

남자현은 경술국치 이후 남만주로 망명길에 올랐다. 서로군정서 여자대원으로 입단하여 이동하는 부대를 따라 이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동 중 발생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켰다. 1921년에는 액목현 육도구전투에도 직접 참전할 정도였다.<sup>39)</sup> 독립운동방략을 둘러싼 갈등을 통합·조정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려 중국 동북지역 각지로 돌아다녔다. 일제의 만주침략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자신의 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국제연맹 조사단에 보냈다. 이처럼 이주한인들에게 항일구국 정신과 생활계몽 등을 통하여 한인들 권익옹호에도 앞장섰다. 액목이나 반석 등지 여자교육회 20여 개를 만들어 여성들 계몽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sup>40)</sup>

사회주의계열의 대표적인 항일투사는 허성숙이다. 여전사들은 동북항일연구 산하에서 활동하였다.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 지도로 반봉건·반제투쟁이 활발하던 1930년에 소년선봉대에 가입했다. 2년 후에는 공산청년단에 입단하여 고된 훈련을 받았다. 임강전투나 안도현전투 등 여러 차례 전투대원으로 참가하여 동지를 격려하였다. 1937년 삼간동전투에서 혁명한 전공을 세워 ‘여장군’으로 칭송될 정도였다.<sup>41)</sup> 아쉽게도 1939년 시베차이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24세 꽃다운 나이로 숨졌다.

최근 나혜석 활동에 주목한 연구도 나왔다. 1921년 10월 남편 김우영은 한국인 최초로 안동부영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외교적인 특권을 이용하여 의열단원들 무기 운반과 국경지대 통과를 도왔다. 긴박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나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를 자신의 숙명처럼 알고 행동으로 옮겼다. 외중에도 중국 풍속과 관련된 그림그리기에 열중하여 조선미술전람회에 특선과 여러 차례 입선하였다. 단동에서 생활은 자신의 화풍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되었다. 또한 현지 한국인 부인들을 위한 여자운영을 설립하는 한편 부인회도 조직했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 지위 향상은 물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sup>42)</sup> 이는 항일여성운동사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38) 김양, 「중국에서의 한국인의 반일독립운동—중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윤희순의 반일애국투쟁정신—」, 『한말-일제강점기 국내외 의병항쟁과 국권회복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23쪽 : 윤정란, 「남만주지역 한인여성들의 항일의의활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08, 370~371쪽.

39) 『남자현여사약전』 : 윤정란, 「남만주지역 한인여성들의 항일의의활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08, 372~373쪽.

40) 박용옥,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 여전사 연구-30 여전사의 전기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5.

41) 연변조선자치주 부녀연합회 편저, 『항일녀투사들』, 201~216쪽.

42)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승실사학』 24, 승실사학회, 2010.

## 4. 러시아지역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러시아지역 항일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1990년 국교 수립과 이듬해 소련 체제가 붕괴하는 이전까지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이후 국가기관과 대학 연구소, 방송국과 신문사, 문화재단 등은 현지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현지 생활 소개와 항일전적지 답사 등으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한국학 관련 자료 등이 발굴·정리는 관심과 연구 수준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참고문헌 러시아지역 참조). 전반적인 연구 수준 심화와 달리 여성항일운동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진하다.<sup>43)</sup>

이곳 최초 여성단체는 1909년 12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립된 자혜부인회(慈惠婦人會)이다. 중심인물은 한인사회 지도적 인사인 최봉준·차석보·이상운 등 부인 9명이었다. 목적은 여학교 설립에 의한 교육함양과 상호부조였다.<sup>44)</sup> 즉 여성교육과 권리 신장은 바로 국가 발전인 애국적인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쉬운 점은 자신들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실이다. 당시 임원진은 회장 최봉준 부인, 부회장 박산혁 모친, 총무 이상운 부인, 서기 김성무 부인, 회계 차석보 부인과 이형욱 부인 등, 평의장 황봉룡 부인 등이었다. 찬성원은 최봉준·김학만·고상준·차석보·정재관·정순만·한형권·이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한민학교와 비롯한 여학교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시대 변화에 부응한 여성활동가들을 육성에 혼신을 기울였다.

신한촌으로 이주한 후 기독교인 부인들을 중심으로 자혜부인회는 다시 조직되었다. 1912년 10월 24일 권업회 종람소에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박산혁 모친, 구제원은 문반수 대부인을 선출한 후 평의원 15명과 찬성원 남자 8명을 추가했다. 체계화는 “간절한 말로 회원에게 권면하는”하고, 참석한 사람들은 ‘조국생각가’를 합창하였다.<sup>45)</sup> 그런데 이 단체 운영은 순조롭지 않았다. 다음 기사는 당시 정황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이 회를 설립한 본의는 교육과 실업 등 문명사업에 용력하여 전도의 문명을 개발하거나 총기와 탄환기를 사서 후일 독립군일 때에 한 힘으로 돕자 함이니 어찌 사사환란(私事患亂)을 위해 서로 구원함으로 목적을 삼으리오.<sup>46)</sup>

43)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447~450쪽.

44) 『대동공보』 1909년 12월 30일 「부인회 조직」.

45) 『권업신문』 1912년 10월 27일 「부인회 개회」.

46) 『권업신문』 1912년 12월 1일 「노부인의 강개한 언론」.

이에 참석한 부인들은 일제히 찬성하고 앞서의 논의를 철회하였다. 회원들 상호간 운영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음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대한여자단 조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회원들은 권업신문사 의연은 물론 한민학교 여학생교실건축발기회에 동참했다.<sup>47)</sup> 여성단체 활동과 더불어 한인여성들은 한민학교 지원, 이준의 전기 간행과 유족 후원, 이갑의 치료비 후원 애국적인 의연금 모금에 자발적이었다.

스찬지방에도 2개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 동개터 연미동 부인회는 30여 명 회원으로 1914년 6월 창립되는 계기였다. 회장은 김사과 부인, 부회장은 강만규 부인, 총무는 손춘서 부인, 서기는 우시하 부인 등이었다. 스찬 나훗카에도 선유부인회가 있었다. 일제는 이 단체를 “단순한 부인의 집단”으로 파악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각 지방이 노동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48)</sup> 이러한 경험은 이후 항일운동을 펼치는 정신적인 유산으로 계승되었다.

러시아혁명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정치적인 변동을 수반했다. 그럼에도 한인여성들 지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로한족대표자회에 참석한 96명의 단체대표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sup>49)</sup> 다만 여성 중 일부는 교사로서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삼일여학교 교사로 재직한 김덕영(金德榮)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김덕영씨는 배꽃같이 희어 멀숙한 이가 낮에 화기가 나서 성경을 가르치느라고 진실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하면서 재미있는 강연을 합니다.…(중략)…망부의 재산을 처리하여 아들의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계속하려 함은 모자의 윤리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큰 인물을 양성시키는 그이의 결심은 우리의 감탄하며 더욱 바라는 바올시다.”<sup>50)</sup>라고 기자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1917년 11월 17일 신한촌에서 개최된 ‘단군대조성탄기념회’에 김덕영은 삼일학교 대표로 연설했다. 이후 그는 상하이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등에서 맹활약하였다.

이동휘의 딸인 이의순도 이듬해 국치기념일 행사에 나섰다. 그는 ‘역사에 관한 강화’를 통하여 한인여성들 자긍심을 일깨웠다. 이는 한인여성들에게 사회적인 책무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기폭제와 다름없었다. 한민학교·회동학교·보명학교·수청중학교·문덕학교·송동학교 등에 여성들 의연금 지원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sup>51)</sup>

3·1운동 이후 항일여성운동가 중 단연 부각된 인물은 김알렉산드라 페트르브나 시탄케비치이

47) 『권업신문』 1914년 4월 5일 「한민학교녀학강실건축발기회취지서」.

48) 『권업신문』 1914년 6월 28일 「연미동에 부인회」: 반병률, 「러시아 지역 항일여성독립운동」, (사)3·1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247쪽.

49)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139~140쪽.

50) 『한인신보』 1917년 11월 17일 「우리의 일과: 학교를 살리고 큰말을 들음」.

51) 『한인신보』 1917년 9월 30일자, 10월 7일자, 12월 9일자, 12월 21일자, 1918년 1월 6일자, 1월 23일자.

다. 계봉우는 『독립신문』 1920년 4월 17·20·22일자 「김알렉산드라 소전(小傳)」에서 “자유를 위하여 일하고 자유를 위하여 죽어간 인물”로 평가하였다. 김알렉산드라와 같이 활동한 혁명가인 계봉우·이인섭·김마트베이 등은 전기와 회상록의 형태로 기록했다. 우랄지역에서 같이 활동한 김시약도 귀중한 회상을 남겼다.

1915년 나는 나제진스크의 벌목장에서 일했다. 어느 날 나는 목재창고의 문 근처에서 중키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노동자들은 그녀가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관이라고 수군거렸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이었다. 그는 중정하게 노동자들을 대했고, 사업주 앞에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를 사랑하고 모든 점에서 그를 신뢰했다.<sup>52)</sup>

회상기와 전기는 이후 김알렉산드라를 러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시켰다. 박영석·반병률·박환·임경석 등은 이를 바탕으로 생애뿐만 아니라 항일여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부각시켰다.

3·1운동과 부인독립회 회원들에 대한 활약상은 한인신보사나 독립신문사에서 특집 보도하는 등 항일여성운동가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주요 인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의순은 중국 동북지역 명동여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삼일여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1919년 국치기념일에서 그는 연사로 나섰다.

나는 여자이지만 대한민족인 것은 일반이고, 남자와 동등의 권(權) 있는 이상은 어찌 안연(晏然)하게 좌시할 것인가? 내지에서는 여학생들 다수가 유(流)하였지만 해외에 있는 여자들은 어찌 수수방관하고 재가안락(在家安樂)을 탐(貪)함으로써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저 원수의 총검 아래에서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나의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이다.<sup>53)</sup>

언니 이인순도 여자교육에 진력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후 11월 사망했다. 이에 독립신문사는 특집으로 자결한 남편 정창빈과 함께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를 내었다.

철혈광복단에서 활약한 우봉운도 활동가 중 한 사람이다. 188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52) 반병률,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의 생애와 활동-조선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의 약전」, 『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1990, 776쪽.

53) 일본의무성사료관, 「선인에 관한 건(1919년 9월 3일자)」, 『불령단체잡건 조선인의부 재서비리아』 8(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그는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기독교계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중국 동북지역으로 망명한 후 명동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20년 봄에 블라디보스토크 활동 근거지를 옮겨 부인독립회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sup>54)</sup>

채계복은 철혈광복단원이었다. 아버지 채성하는 노인동맹단 간부로 강우규의거를 이면에서 도왔다.<sup>55)</sup> 이러한 가정 분위기는 그를 대한적십자사 간호부로서 활동했다. 부인독립회의 간호부 양성계획은 그의 주도로 미주 한인과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향후 독립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독립군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sup>56)</sup>

1920년 4월 참변은 연해주지역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부인독립회 회원들은 중국의 국경지역인 이만 한인마을 다반촌으로 겨우 도피할 수 있었다. 이의순과 우봉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되돌아왔으나 채계복은 서울로 되돌아갔다. 이의순은 상하이로 활동 무대를 옮겨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우봉순도 서울로 돌아와 조선여성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 근우회 등에서 중심적인 인물로서 활약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지역 항일여성운동은 일부 여성단체와 인물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요 원인은 러시아 각지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이 되지 않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소수에 불과한 연구진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특히 1922년 말에는 시베리아 내전이 종결되어 소비에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였다. 러시아지역에서 항일여성운동은 이번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일여성운동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말았다. 당시 상황과 심화된 연구를 기대한다.

## 5. 나오는 말 - 연구 진전을 위한 제언-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임시정부는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안창호는 1920년 신년축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밝혔다. “국민개병주의라야 하오. 독립전쟁이 공상이 아니오. 사실이 되려면 대한의 이천만 남녀가 다 군인이 되어야 하오. 그 방법이 여하한가요.....여자도 배워야

54) 일본의무성사료관, 「선인에 관한 건(1920년 8월 28일자)」, 『불령단체잡건 조선인의부 재서비리아』 10(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5) 최계립, 「리민환(홍파)동지의 력력」,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흥범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447~448쪽.

56) 일본의무성사료관, 「선인에 관한 건(1920년 3월 12일자)」, 『불령단체잡건 조선인의부 재서비리아』 9(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하오. 군사적 훈련을 아니 받는 자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전쟁을 반대하는 자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요.”<sup>57)</sup> 선언적인 의미와 달리 여성이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외곽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의 주요 활동영역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여자계의 연락, 내부의 선전, 정부의 복역, 선전, 선전 자료의 공급, 훈로자 포상, 유족의 위로, 공역자 초대, 대한적십자사 방조(傍助), 외국인 빈상, 개남주의, 성적표 기록 등은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은 사회적인 인습과 편견을 타파하고 독립전쟁 전선에 직접 뛰어들었다. 김순애·이화숙 등은 1920년 상해대한거인거류민단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김마리아는 1922년 2월 임시의정원 보결선거에서 김구와 함께 황해도 의원으로 선출되는 기업을 토했다. 그는 이듬해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표 자격으로 개막 연설을 하는 등 당당한 존재성을 알렸다.<sup>58)</sup> 중일전쟁 이후 여성들은 독립전쟁 전선에 동참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1940년 한국독립당에 이순승·조용제·방순희·정정화·최선화·최형록·조계림·민영주·연미당·이국영·오희영 등은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임시정부 직원으로 활동한 여성들도 증가하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적이었다.<sup>59)</sup>

여성광복군 오광심은 “우리가 남녀평등을 아무리 부르짖지만은 또는 여권을 찾아보자는 구호가 밤하늘 구름처럼 높았지만 원래 이런 혁명적 임무를 지지 못하면서 어찌 권리를 말할 수 있으리오. 평등과 권리를 찾으려면 먼저 자체의 분투와 능력이 있고 국가와 사회의 임무를 남자와 같이 부채(負債)하고야 될 것이다.”<sup>60)</sup> 지복영도 “현재의 영국 부녀들은 군대 농사 교통 군화(軍火)제조 구호 위로 등 규모 광대한 조직을 형성하여 부자유한 생활권을 벗어나려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었다. 중화의 여아들도 이중삼중의 압박을 벗어나려고 날아드는 침략자의 총알을 두려움이 없이 가슴을 내밀고 태항산 심곡으로 황하 연안으로 대륙의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며 침략자를 향하여 피압박자를 향하여 고향치며 싸우고 있지 않는가?”<sup>61)</sup> 라며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투쟁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 여전사와 달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여성들도 있었다. 비록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독립운동가 아내·어머니·동지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 정정화는 임시정부

57) 안창호, 「우리 국민이 斷定코 實行할 六大事(一년)」, 『독립신문』 1920년 1월 8일자.

58)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294쪽.

59) 김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1932~1945」,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2008.

60) 오광심, 「한국여성동지에게 일언을 들림」, 『광복』 제1권 제1기, 21~22쪽.

61) 이복영, 「대시대는 왔다 한국여동지야 활약하자!」, 『광복』 제1권 제1기, 23~24쪽.

안살림꾼, 최선화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 연미당은 남편의 든든한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은 독립전쟁사에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였으나 과소평가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역사무대 주인공으로 불러내는 작업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전승해야 할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1) 중국 관내지역**

- 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 강대민, 『여성조선의용군 박차정의사』, 도서출판 고구려, 2004.
- 강용권, 『죽은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 만주 항일 유적지 답사 1』, 장산, 1996.
- 김경일 외,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김광자, 『일제강점기 기독교여성지도력 유형 비교 연구』, 숭실대박사학위논문, 2017.
- 김광재, 『한국광복군』-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2,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김삼용, 『약산 김원봉 평전』, 시대의창, 2008.
- 김 양, 『불굴의 투사 윤희순』, 료녕민족출판사, 2003.
- 김영란, 『조국과 여성을 비춘 불멸의 별 김마리아』, 북산책, 2012.
- 김자동, 『상하이 일기』, 두꺼비, 2012.
- 김자동,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푸른역사, 2014.
- 김재현, 『한반도에 올려펴진 희망의 아리랑-한국기독교 민족지도자 50인』, 키아츠 프레스, 2015.
- 김형민, 『한국사를 지켜라 1-독립운동가로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16.
- 민족문제연구소, 『여인열전-여성, 세상을 열다(임종국선집 7)』, 아세아문화사, 2006.
- 박결순, 『증평 곡산연씨 일가의 독립운동』, 경인문화사, 2016.
- 박석분·박은봉 저, 『인물여성사』, 새날, 1994.
- 박용옥,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 , 『여성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1,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반병률,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 신서원, 2013.
- 서경덕·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소,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인물편 1)』, 엔트리, 2016.
- 선안나, 『일제강점기 그들의 다른 선택-광복을 염원한 사람들, 기회를 쫓은 사람들』, 피플파워, 2016.
- 송남현, 『몸으로 쓴 통일독립운동사-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3-』, 한울, 2007.
- 신명식, 『정정화-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 신영숙, 『여성이 여성을 노래하다-일제강점기 한국여성사-』, 늘봄플러스, 2015.

- 심옥주, 『윤희순 평전』,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2009.
- 연동교회,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2009.
- 염인호, 『김원봉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3.
- 외솔회, 『나라사랑-김마리아 특집호』 30, 1978.
- 윤선자, 『권기옥-대한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 이덕주,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개화기 여성 리더들의 혈전의 역사』, 흥성사, 2007.
- 이무성, 『나는 여성독립운동가다-항일여성독립운동가 30인의 시와 그림』, 열레빗, 2013.
- 이윤옥, 『서간도에 들꽃 피다-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열레빗, 2011.
-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문고 65』, 정음사, 1975.
- 이화림 구술(장찬제·순진리 엮음, 박경철·이선경 옮김), 『이화림 회고록』, 차이나박, 2015.
- 정운현, 『조선의 딸, 충을 들다』, 인문서원, 2016.
- 정운현·정창현, 『안중근家 사람들』, 경인문화사, 2017.
- 정정화, 『녹두꽃』, 미완, 1987.
-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 장군』, 문학과 지성사 1995.
- 지복영(이준식 정리), 『민들레의 비상-여성 한국광복군 지복영 회고록』, 민족문제연구소, 2015.
- 최은희,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한국 최초의 여기자 추계 최은희의 개화여성열전-』, 문이재, 2003.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가 구술자료총서 1-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2012.
- 한상우,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지식산업사, 2003.
-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 일조각, 1997.
- 강대민, 「박차정의 생애와 민족해방운동」, 『한일연구』 12, 한국일본문제연구학회, 2001.
- 강영심, 「김순애(1889~1976)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 김삼웅, 「임시정부의 살림꾼 정정화」, 『10대와 통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 철수와영희, 2014.
- 김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1932~1945」,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2008.
- , 「최선화의 중국망명생활과 독립운동-『제시의 일기』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1, 승실사학회, 2013.
- , 「상해 입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 29, 한국여성사학회,

2018.

- 김영주, 「한국최초의 여류비행사 권기옥」, 『역사와 실학』 32(하), 역사실학회, 2007.
- 김형목, 「정정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하다」, 『기록IN』 26, 국가기록원, 2014.
- , 「부록 : 연미당」, 『여주독립운동사 개설』, 여주박물관, 2014.
- , 「아름다운 인연 : 연미당 엄항섭 부부의 독립운동 이야기」, 『백범회보』 봄호, 백범김구기념재단, 2015.
- , 「전월순과 김근수, 독립전쟁 현장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다」, 『백범회보』 여름호, 백범김구기념재단, 2015.
- , 「김봉준 지사 일가의 독립운동 이야기」, 『백범회보』 가을호, 백범김구기념재단, 2015.
- , 「독립전쟁과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일상사-독립운동을 위한 지원활동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전쟁과 유물』 7, 전쟁기념관, 2015.
- 박영석, 「해외한인독립운동사연구」, 『한민족독립운동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 박용옥, 「김마리아의 망명생활과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 박 환, 「여자 독립군 오희옥 여사 면담기」,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07.
-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항일무장투쟁의 큰 산맥, 박차정과 김원봉」,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1999.
-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온라인 국가기록원 ‘독립운동판결문’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 오일환, 「조마리아의 생애와 여성리더십」, 『민족사상』 7-4,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 윤선자, 「한국독립운동과 권기옥의 비상」, 『한국근현대사연구』 6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 윤정란, 「곽낙원의 생애와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4, 백범학술원, 2006.
- ,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삶」,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8.
- , 「일제강점기 박자혜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삶」, 『이대사학연구』 38, 이화사학연구소, 2009.
- 이명화, 「연미당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2015.
- 이방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과 역사』 22, 한국여성사학회, 2015.
-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이화사학연구』 30, 이화사학연구회, 2003.
- 이송희, 「박차정 여사의 삶과 투쟁: 민족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을 위해 분투한 한 여성의 이야기」,

- 『지역과 역사』 1,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6.
- 이재호, 「소벽 양우조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학지』 36, 단국사학회, 2003.
- 이준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 이혜숙·강인순, 「박차정」, 『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 지앤유, 2015.
- 장만기, 「여권과 주권의 희구=김마리아」, 『역사의 인물』 8, 일신각, 1979.
- 정경환, 「김마리아의 구국투쟁과 독립정신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7-4,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 조선혜, 「김마리아와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 운동」, 『믿음, 그리고 겨레사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한시준, 「중국관내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 , 「여성광복군과 그들의 활동」, 『사학지』 37, 단국대사학회, 2005.
- , 「정정화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학지』 47, 단국대사학회, 2013.

## 2) 중국 동북지역

- 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 강용권, 『죽은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 만주 항일 유적지 답사 1』, 장산, 1996.
- 김명섭, 『한국사가 기억해야 할 용인의 근대 역사인물』, 노스보스, 2015.
- 김양 주편, 『근대중국 조선족녀걸』, 북경민족출판사, 1995.
- 김 양, 『불굴의 투사 윤희순』, 료녕민족출판사, 2003.
- 김재국 주편, 『중국조선족항일녀투사들』, 료녕민족출판사, 1993.
- 김재현, 『한반도에 올려퍼진 희망의 아리랑-한국기독교 민족지도자 50인』, 키아츠 프레스, 2015.
- 김형민, 『한국사를 지켜라 1-독립운동가로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16.
- 박석분·박은봉 저, 『인물여성사』, 새날, 1994.
-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 선안나, 『일제강점기 그들의 다른 선택-광복을 염원한 사람들, 기회를 쫓은 사람들』, 피플파워, 2016.
- 신영숙, 『여성이 여성을 노래하다-일제강점기 한국여성사-』, 늘품플러스, 2015.
- 심옥주, 『윤희순 평전』,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2009.
- 연길시정협문사자료위원회, 『연길백년교육(1901-2001)』, 2001.

-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항일녀투사들』, 연변인민출판사, 1984.
- 중공연변주위 당사사업위원회, 『연변인민의 항일투쟁』, 연변인민출판사, 1989.
- 이덕주,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개화기 여성 리더들의 혈전의 역사』, 흥성사, 2007.
- 이무성, 『나는 여성독립운동가다-항일여성독립운동가 30인의 시와 그림』, 열레빗, 2013.
- 이윤옥, 『서간도에 들꽃 피다-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열레빗, 2011.
-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문고 65』, 정음사, 1975.
- 이화림 구술(장찬제·순징리 엮음, 박경철·이선경 옮김), 『이화림 회고록』, 차이나박, 2015.
- 정운현, 『조선의 딸, 충을 들다』, 인문서원, 2016.
- 정운현·정창현, 『안중근家 사람들』, 경인문화사, 2017.
- 조동걸, 『우사 조동걸 저술전집 19-선열의 길과 유적-』, 역사공간, 2010.
- 최범산, 『압록강 아리랑-최범산의 항일유적 답사기-』, 달과해, 2012.
- 최은희, 『여성을 넘어 아낙의 너울을 벗고-한국 최초의 여기자 추계 최은희의 개화여성열전-』, 문이재, 2003.
- 허은·변창애 지음,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민족문제연구소, 2015.
- 강준만,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어머니 수난사』, 인물과 사상사, 2009.
- 김인숙,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 시원을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 『력사과학』, 1999.
-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승실사학』 24, 승실사학회, 2010.
- , 「중국 동북지역 나혜석 답사기」, 『나혜석연구』 5, 나혜석학회, 2014.
- 리성주, 「항일 빨찌산의 공산주의 도덕적 풍모」, 『력사과학』, 1961.
- 림호운,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주체혁명 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력사과학』, 1999.
- 박영석, 「남자현의 민족독립운동-중국동북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소, 1992.
- , 「해외한인독립운동사연구」, 『한민족독립운동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 박용옥, 「대륙의 백의민족=만주·중국의 동포」, 『한국현대사: 신사회 100년』 8, 신구문화사, 1969.
- ,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 여전사 연구-30 여전사의 전기들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5.
- , 「1920·30년대 항일여성 의열·무장투쟁」, 『성신사학』 12·13, 성신여대, 1995.
- 박은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녀성동맹을 주체의 혁명적 녀성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구리시는 길에서 상오신 불멸의 업적」, 『력사과학』, 1993.

- 박현옥, 「만주 항일무장투쟁하에서의 여성해방정책과 농민여성」, 『아시아문화』 9,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3.
- 장세운, 「만주지역 독립운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정길봉,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조국해방 3대로선 관철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력사과학』, 1998.
- 차상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 영광스러운 조선혁명 운동력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력사과학』, 1997.

### 3) 러시아지역

- 3·1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 김승화(정태수 편역), 『소련한족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 마프베이 찰포피예비치 김(이준형 옮김),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 1990.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1994.
- 박석분·박은봉 저, 『인물여성사』, 새날, 1994.
-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 서대숙(이서구 옮김), 『소비에트한인백년사』, 도서출판 태암, 1989.
- 신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 동아일보사, 1988.
-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연구』, 탐구당, 1996.
- 이윤옥, 『서간도에 들꽃 피다-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열레빗, 2011.
- 정운현,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인문서원, 2016.
- 정운현·정창현, 『안중근家 사람들』, 경인문화사, 2017.
-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 어문각, 1967.
- , 『나의 인생 나의 찬스』, 문원사, 1994.
- 고승제, 「연해주 이민사 연구(1853년~1945년)」, 『국사관논총』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 박보리스, 「러시아에서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사료현황: 1905~1922」, 『해방 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5.
- 박영석, 「해외한인독립운동사연구」, 『한민족독립운동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 박 환, 「한인사회당 지도자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 『서암조항래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1992.

- , 「러시아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 반병률,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의 생애와 활동: 조선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의 약전」,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한국근대사논총간행위원회, 1990.
- , 「재로한인 강제이주 이전 한인사회의 동향(1923 ~ 193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 「러시아지역 한인신문 『선봉』과 1920·30년대 한인사회」, 『역사문화연구』 19,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03.
- ,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역사문화연구』 23,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05.
- , 「러시아지역 항일여성운동」, (사)3·1운동여성동지회 편, 『한국여성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8.
- 오일환, 「조마리아의 생애와 여성리더십」, 『민족사상』 7-4,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국제 심포지엄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발표3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과제

강 수 옥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과제

강 수 옥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중국에서 조선인(조선족)<sup>1)</sup> 여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 11월 19일 연변대학교에서는 여성연구센터인 "여성문제연구중심"을 설립했다. 연구기관 설립은 당시 여성연구의 필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학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한 인식의 대전환이었다. "여성문제연구중심" 설립은 이후 조선족여성에 대한 연구의 양적 축적을 가져온 주요한 계기였다.

초기 여성사연구가 역사발전에 기여한 걸출한 여성인물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했듯이 조선족여성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항일전쟁, 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름과 업적을 남긴 조선족여성들에 대한 저서 출판은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조선족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로서 출판된 저서는 모두 4권으로 3권이 동북항일전쟁시기와 해방전쟁시기의 연변여성운동과 1990년대까지 각 시대별 조선족여성들의 업적을 기록하였다.<sup>2)</sup> 다른 하나는 『조선족여속고』라는 저서로 생산 활동에 참여한 조선족여성들의 근면함과 강인함, 항일전쟁, 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족여성들의 공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몇 편의 저서를 제외하고 조선족여성에 관련된 논문들은 주로 여성 취업, 혼인 및 가정,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여성의식, 여성교육, 여성 이미지, 여성 여가, 소비, 이주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족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국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 1) 중국을 삶의 터전으로 조선인은 17세기 초인 명말청초부터 시작하여 인삼채집과 수렵을 목적으로 하는 범월과 이주를 이어오다가 19세기 중반의 본격적인 이주를 거쳐 1952년 9월 중국조선족이란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2)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연합회, 『연변여성운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2; 당대중국조선족녀결편집위원회, 『당대 중국 조선족 여걸』, 북경민족출판사, 1992; 리광인·립선옥, 『항일련군의 조선족여전사들』, 연변인민출판사, 2015.
- 3) 차명숙, 『조선족여속고(상)』, 상해 금수문장출판사, 2015, 120쪽.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 남성의 반일지사에 관한 연구는 반일활동, 전장에서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의 이주 배경과 목적, 그리고 중국에서의 삶과 활동을 다룬 논문과 저서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성과는 열사들 가족, 전우, 지인을 통해 입수한 구술 자료, 생전 여 전사들의 항일 경험과 여동지에 대한 회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편찬서나 회고록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국 남방에서의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는 더욱 미흡하다.

관련된 자료의 부족으로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논문과 저서들에 흠어져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논문을 완성하였지만 시론적 수준에서 검토하였기 때문에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진맥하려 한다.

## 2.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중국조선족역사연구는 총체적으로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여성사 연구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1945년-1955년 :

이시기 국가에서 민족식별사업의 수요가 민족사연구의 발전을 추진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민족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민족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일원인 중국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도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시기 주로 조사가 위주였기에 이는 중국조선족역사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955년-1965년

이 시기는 중국조선족역사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조선족역사연구에 관련된 자료 수집은 1956년이 시점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시 중공중앙에서 "지식분자공작에 관한 회의"에서 "과학을 향해 진군"이란 호소 하에서 과학연구와 학술연구를 중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1957년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주최 하에 원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북경대학,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연변대학의 60여명의 역사학자는 연합하여 길림성 소수민족사회 역사조사팀을 구성하고 중국조선족에 대한 역사와 사회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국제적으로 폐쇄되

고 국내적으로 정부의 당안 자료가 많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조사조는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대규모적인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 조선족 이주사, 동북수전개발사, 조선족혁명투쟁사에 관한 자료가 매우 많이 발굴되었다. 구술 자료들도 많이 나왔다. 이러한 구술 자료들의 일부는 아직도 정리, 출간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해방 전의 구술사연구는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할지라도 2차성구술사연구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조사연구에서 참여했던 많은 학자들이 별고하면서 그들이 남겨두었던 많은 재료가 분실된 상황이다.

1966년부터 1979년 전까지는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연구 활동이 침체되고 개인적인 연구도 활발히 벌이지 못했다.

세 번째 단계는 1979년-2000년

이 시기는 중국조선족사연구가 다시 활기를 띤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9년 전국각지의 전문가들은 민족역사연구사업에 대한 일정을 다시 기획하였다. 1981년 연변대학 민족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조선족사연구의 역량이 한층 가강됨과 동시에 또 많은 성과물을 거두어 냈다.

네 번째 단계는 2000년-현재

21세기에 들어서면 국내외의 학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또 일정한 정도의 문헌자료도 많이 공개되었다. 특히 일본 측과 한국 측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중국조선족역사연구의 발전이 가속화 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2대 조선족역사연구 핵심들의 등장 역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연변대학에서 직접 배양해낸 일부 중견학자들도 합류하여 조선족역사연구를 에워싸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중국조선족 역사연구는 4계단을 거쳐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평생을 중국조선족역사학연구에 몸을 담고 많은 연구 성과를 따냈다.

이 부분에서는 주요하게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인물전, 회고록, 문집, 수필집에 수록된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시간별로 소개하려 한다.

### (1) 1951-1956년

이 단계에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편집한 <김순화이야기>(연변인민출판사, 1951년)가 있다. 1958년 관말남 저, 연변인민출판사 역, <동북항일이야기>(연변인민출판사, 1958년)가 있고 연변인민출판사 편: <혁명투쟁회역록> 1-5, (연변인민출판사, 1958-1960년); 연변인민출판사 편: <혁명투쟁회상기> 2-4, (연변인민출판사, 1959년)가 있다. 이 회역록들에 동북지구 항일투쟁

여 전사들의 활동도 실려 있으리라 추정된다.

### (2) 1960-1969년:

이 단계에 연변인민출판사 편:〈혁명투쟁회상기〉1-3,(연변인민출판사,1960년)가 있다. 그리고 왕가을, 기업 원저, 연변인민출판사 역:〈김옥희〉,(연변인민출판사,1963년)가 있다. 항일연군 여 전사 김옥희를 모델로 이 책을 만들었다. 책에서는 항일전쟁시기 항일연군이 북상한 후, 지방에 남아있던 조선족 여 공산당원 김옥희가 민중을 이끌고 지방에서 투쟁한 사실을 묘사하였다. 후에 변절자의 밀고로 김옥희는 적들에게 체포되었지만 잔혹한 고문에도 끝까지 당과 유격대의 비밀을 고수하였다.1959년 장춘영화촬영소에 의해 〈김옥희〉란 이름으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 (3) 1980년-1989년:

이 단계에 서운경 작, 정금 번역,〈항일연군의 영웅적 자매들〉(요녕인민출판사,1980년)이 있다. 이 책에서는 1938년 항일구국의 투쟁에서 일본군에게 포위되자 8명의 여전사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순국한 영웅적 장거를 묘사하였다. 이 8명의 여전사들로 제2로군 제5군의 부녀단 지도원 냉운(冷云),반장 호수지(胡秀芝), 양귀진(杨贵珍), 전사 곽계금(郭桂琴),황계청(黄桂清), 왕혜민(王惠民),이봉선(李凤善)과 피복공장 공장장 안순복(安顺福)이다.이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여전사가 냉운인데 그때 나이 23세, 나이가 가장 어린 여 전사는 왕혜민으로 겨우 13세밖에 안되었다.8명중 두명의 조선족 여전사가 있는데 바로 안순복(1915-1938,흑룡강성목룡시목룡진신안툰)과 이봉선(흑룡강성임구현룡좌향)이다.

1982-1990년 연변조선족자치주민정국편 :〈장백의 투사들〉(연변인민출판사,1982-1990년)에도 여성항일투사에 대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이 시기,박창욱 주편:〈중국조선족혁명렬사전〉1-3,(료녕인민출판사,1983,1986,1992년) 이 있고 연변부녀련합회 편:〈항일여전투사들〉(연변인민출판사,1984년)가 있다.〈항일여전투사들〉은 항쟁의 나날에 항일의 진두에서 싸운 연변의 항일 여투사들의 사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중에는 대중을 항일어로 이끈 홍혜순, 항일연군여전사 허성숙,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나무꼬챙이를 가슴에 박는 일본군의 만행에도 끝까지 당의 비밀을 지킨 안순화, 여성간부 김영신,이숙 등 20명 여전사들이 있다.

1989년 이광인,김영주 저<피어린 새벽길: 조선족 소년 항일열사전〉(연변인민출판사,1989년)이 출판되었다.

#### (4) 1990년-2000년:

1992년 연변역사연구소 편:〈중국조선족인물전〉(연변인민출판사, 1992년)이 출판되었다. 같은 해, 연변조선족자치주 부녀연합회 편:〈연변여성운동사〉(연변인민출판사, 1992년)가 출판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40돐을 앞두고 출판된 이 책은 〈9.18〉사변전의 연변여성들의 처지와 각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주로 동북항일전쟁시기와 해방전쟁시기의 연변여성운동을 내용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여성항일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신문화계몽운동을 거쳐 사상의식면에서 뚜렷한 제고를 가져온 연변조선인여성들은 봉건적 종법제도를 물리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0세기 20년대 말과 30년대 초 연변에서 혁명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각급 여성조직이 건립되었으며 여성운동도 부단히 발전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의 흐름 속에서 연변조선인여성운동은 역사적인 역할을 충분히 나타내었다. 일제의 강점에 저항하였던 항일여성독립운동은 1905년 이래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때로는 구국적 여성교육운동으로 또 때로는 민족 경제 진흥운동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특히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와 1919년 3.1운동에서의 참여활약은 한국여성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1920, 30년대의 항일여성운동은 3.1운동이전에 추진된 모든 여성운동을 총체 화하고 그 여성운동의 기반위에서 항일여성 무장투쟁을 감행하게 하였다. 1920년대 항일여성 무장투쟁은 주로 민족주의 운동계에서는 소수 여성에 의하여 의열 투쟁적으로 감행되었던 반면 1930년대는 중국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여성들이 비교적 다수가 중국공산당에 가입, 중공당 조직을 통하여 치열한 항일전투에 가담하였다.<sup>4)</sup> 연변여성들의 초기항일운동은 1910-1929년이다. 이 시기 연변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파는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192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간행물의 영향 하에 연변지구에서는 1920년대에 여러 개소의 학원, 중학교들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이론보급운동이 일어나 많은 청년들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농촌에 내려가 야학교와 여성, 장년들의 〈식자반〉을 꾸리고 농민들에게 혁명가요를 가르치며 강연회, 변론회 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하여 혁명사상을 전파하였다. 사회주의사상은 항일 여성 민족운동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10년대 문화 계몽운동에서 각성하게 된 여성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연변에 전파됨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사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신애 등 여학생들은 동흥중학교에 조직된 〈사회과학연구회〉에 참가하여 남학생들과 함께 쏘베트 사회제도에 대한 찬성과 여성해방을 제창하였다. 연변여성항일운동의 새로운 발전은 1921-1931년이다. 공산당

4) 박용옥:〈1920.30년대 항일여성 의열. 무장투쟁〉, 한국여성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1991년.

의 영도 하에 연변의 여성들은 여러 가지 여성단체활동을 벌렸다. 동북항일전쟁시기의 연변여성 항일운동은 1931년9월-1945년8월이다. 1931년 <9.18>사변 후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관동군은 동북3성을 강점하고 동북을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연변인민들은 14년간 일본관동군의 유린을 당하였다. 연변여성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항일구국투쟁에 나섰다. 연변여성들은 <추수>, <춘황>투쟁, 무장탈취투쟁, 무장투쟁, 유격근거지건설과 보위, 적구투쟁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1993년 김재국 주편: <중국조선족 항일 여투사들>(요녕민족출판사, 1993년)이 출판되었고 같은 해 통화시정협문사위원회편: <조선독립군 중국동북활동사략>(한문)(요녕민족출판사, 1993년)이 출판되었다. 1995년 김양, 최민자 편: <근대중국조선족여걸>(민족출판사, 1995년)과 김양 편: <항일투쟁반세기>(요녕민족출판사, 1995년)가 출판되었다. 1997년 김양 편: <슬기로운 겨레 여성들>(요녕민족출판사, 1997년)이 출판되었다.

#### (5) 2000-2018년:

2003년 이재덕의 회고록 <송산풍설에 깃든 정>(한문)(민족출판사, 2002년)이 출판되었다. 이재덕은 조선족항일연군 여전사로서 전국인대상무위원회관리국의 부국장을 지냈다. 1917년 12월 조선 평안남도 개천군답도리 농민가정에서 태어나 1924년 흑룡강성 라북현 오동하서툰에 이민을 왔다. 항일 여투사 김성강의 무남독녀이다. 1933년 15세난 이재덕은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되었으며 14년이란 동북항일전쟁의 고난을 겪어온 견증인이기도 하다. 회고록에서 그는 많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혁명의 길에 오르다(1917-1933)>, <항일연군제6군에서(1934-1937)>, <조상지를 따라 삼강지역을 전전하다(1937-1941)>, <서광을 맞이하다(1941-1945)>, <오성붉은기 아래에서(1949-2010)> 등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 항전의 길에서 겪은 투쟁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2003년 김양, 하동의 <불굴의 항일투사 윤희순>(요녕민족출판사, 2003년)이 출판되었고 2005년 이광인의 <인물조선족항일투쟁사> 1-4, (한국학술정보)가 출판되었다. 2007년 김호웅, 강순화 주필: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 한국 명인연구>(연변인민출판사, 2007년), 이광인의 <겨레 항일지사들>(1-4, 민족출판사, 2007년), 이광인, 임선옥 편 <이 땅에 뿌리 내린 겨레 장병들, 항일편>(민족출판사, 2007년)이 출판되었다.

2011년 이광인, 임선옥 편저 <피바람속에 우뚝 선 풍채: 항일의 성전에 목숨 바친 조선족여당원 90명>(민족출판사, 2011년), 2012년 이화림 구술, 장전걸, 손정려 저, 김수영 번역: <조선족구술 역사시리즈: 머나먼 여정>(민족출판사, 2012년)이 출판되었다. 이화림은 1905년 1월6일 조선

평양시 경창리에서 태어나 1930년 중국으로 건너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의용대의 일원으로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쟁에 참여하였다. 연안 중국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다.

2015년 이광인, 임선옥 저<항일연군의 조선족여성전사들>(연변인민출판사, 2015년)은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70돐,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을 맞으면서 항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싸우다가 쓰러진 동북항일연군 여 전사들을 기리면서 쓴 책이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항일무장부대로서 도합 11개군, 4만여명(전성기)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제1군, 제2군, 제3군, 제6군, 제7군은 중국공산당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한 본 지구 항일유격대를 토대로 하여 건립되었고, 제4군과 제5군은 왕덕림의 항일구국군과 이두의 항일자위군 일부를 토대로 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후의 제8군, 제9군, 제10군, 제11군은 각지의 항일의용군일부와 항일산림대를 토대로 조직되었다. 이처럼 항일연군의 11개 군은 그 구성요소가 서로 달랐다.

동북항일연군 제1군으로부터 제7군까지의 발전 역사를 보면 대체로 항일유격대시기와 동북인민혁명군시기, 항일연군시기라는 3차의 과정을 거치었다. 그중 항일연군 제2군을 예로 들면 설립초기에 대부분 연변의 조선족들로 조직되었고 연길, 화룡, 훈춘, 왕청 등 네 개 현 항일유격대의 토대위에서 발전한 동북항일무장역량으로 알려진다. 항일연군 제1군-7군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항일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으로부터 개편된 항일부대로서 수 백 명에 달하는 조선족 여 전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군마다 조선족여성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녀들은 흔히 부녀대, 부녀련, 부녀영, 부녀퇴에 소속되었거나 군과 사 재봉대(피복공장)에 소속되었다. 이 책에서는 항일연군 제1군으로부터 제9군까지의 조선족 여전사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1931년 "9.18"사변 후로부터 1945년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옹근 14년간의 항일투쟁에서 조선족 여전사들은 그토록 엄혹한 환경에서도 단 한사람도 변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동만편>과 <남만편>, <북만편>, <오늘편>으로 나누어 이계순, 최희숙, 박록금 등 47명의 여 전사들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약력과 조선으로 돌아간 항일연군여전사들, 연변항일열사명단에 오른 조선족 여 전사들의 명단을 부록으로 남겼다.

2016년 차명숙 저<조선족여성속고>(상, 하권)는 세 개 장절로 나누어 생산 활동에 참여한 조선족여성들의 근면함과 강인함, 항일전쟁, 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족여성들의 공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상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인물전, 회고록, 문집, 수필집에 수록된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들이다.

### 3.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문제점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는 존재하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 1) 연구인원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는 지난 세기 80년대로부터 시작된 중국조선족역사연구열풍으로 하여 현재까지 버텨왔다. 21세기 10년대 말에 직면한 지금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인원의 결핍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예전에도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진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점차적으로 제2대연구자들의 퇴직과 함께 연구 진영은 점차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제3대 연구자들의 미숙과 부진으로 하여 현재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는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보다 중국조선족의 현실문제연구가 더 인기를 보이면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 2) 연구단체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연변사회과학원 소속 이었던 연변역사연구소가 폐쇄되면서 연구소의 대부분 인원들은 연변주의 정협문사자료위원회 사지반 당사연구실로 분류되어 나갔다. 하여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조선족역사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기관으로는 연변대학 민족역사연구소만 남게 되었다. 연변대학 민족연구소도 전문적인 연구인원을 구비해 있다가 학교의 정책으로 소장 한명만 남겨두고 기타 인원을 모두 학과 분류시키었다.

중국국가인급학회인 중국조선민족사학회는 비록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국가민족위원회 연구실의 지도를 받는다. 198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중국조선족역사연구의 중요한 학술교류 플랫폼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민족사학연구자들을 단결 조직하고 여러 가지 형식의 학술활동을 조직하며 중국민족사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진일보 조선족사학연구의 발전을 추진하며 국내외조선족사학연구의 학술연구자원과 역량을 정합하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 단결에 공헌을 한다. 학회가 설립된 후 조선족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변천 연구 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에서 홀시하지 말아야 할것은 지방연구단체들이다. 주로

연변지역의 당사연구실과 지방지와 문사자료편찬위원회, 지방당교 연변역사학회를 포함한 연구 기구이다.

향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도 현재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중국조선족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답사팀을 구성하고 현지답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이광인, 이광평, 주성화 등과 같은 향토학자들이다.

### 3) 연구팀

중국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는 현재 모두 개개인의 연구 성향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중국조선족항일투쟁사, 중국조선족통사, 중국조선족사료전집, 중국조선족열사약전 등 대형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임시적인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해체되고 만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팀은 지방을 단위로, 인맥을 단위로 구성되기에 협동적인 연구팀구성이 박약하다. 견고하고 향심력이 있는 연구팀구성은 이 방면 연구에서 관건으로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통속적이고 직관적으로 한국여성 독립 운동사를 많이, 널리 알리는 게 급선무이다.

현재 위챗, QQ와 같은 인터넷전파력이 매우 막강함을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층은 이를 호소, 신뢰하고 있다. 이 인터넷 전파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4.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의 미래 연구방향과 과제

### 1) 연구팀의 구성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는 현재 모두 개개인의 연구성향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없이 개개인에 의하여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자료를 수집하고 열독하는 과정에 많은 연구인원들이 여성독립운동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중시가 따라가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팀을 무어 여성독립운동사연구의 심도를 깊이하고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중국한국여성독립운동의 역사흐름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협동연구의 전개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에서 인물전과 같은 것은 여러 명이 협동하여야 완성할 수 있는 것 들이다. 20세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일본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개개인적인 연구가 가능했고 또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개개인 연구도 부동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자료의 공개가 잘 되어있으나 연구인원이 결핍한 상황에서 협동연구를 하지 않으면 큰 틀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한다.

## 3) 다양한 연구의 전개

예전의 여성운동사 연구를 볼 때 대부분 단조로운 투쟁사에만 그쳤다.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활동과 역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여성들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결과 중국에서의 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몇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소수의 단체, 그리고 상해와 중국동북지역에서의 여성독립운동 등 단편적인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독립운동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이 총체적으로 조망된 연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외 망명지에서의 독립운동이 독립운동 그 자체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신의 임정 요인들을 보살피며 가족과 함께 생활과 독립운동을 병행하던 여성,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과 독립운동을 병행하던 여성, 망명지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생활과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여성,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과 아들의 독립운동을 내조했던 여성들, 독립운동가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을 생활화하며 성장하여 독립운동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들이 독립운동과 함께 생활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 4) 자료건설의 절박함이 필요함

연구에서 있어서의 관건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는 주로 중국, 한국, 조선 등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자료들이 위주이다. 상술한 국가에서 나름대로 한국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집을 출간했다. 특히 중국, 한국 측의 자료가 현재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도 산재되어 있기에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밖에 예전에 작성한 구술 자료도 매우 큰 연구가치가 있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역사연구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4개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가 지목해야 할 연구 성과를 첨부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성과에서 빠뜨린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반 연구 성과들을 모두 수록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역사연구의 발전과정을 더듬어 보고 또 연구 성과를 종합해본 결과 이 방면 연구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필자는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연구에서 우리가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이 방면 연구에 있어서 협동연구의 전개가 필요하며 다양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함과 동시에 자료건설의 절박함을 제시하였다.



국제 심포지엄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토론1

「일제시기 국내 항일 여성운동 연구사 검토」에  
대한 토론문

강 정 속 (성균관대학교)

---



## 「일제시기 국내 항일 여성운동 연구사 검토」에 대한 토론문

강 정 속 (성균관대학교)

이지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까다로운 연구사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1910~193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에서 '항일'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항일여성연구의 대표적 유형인 인물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항일여성운동 연구의 진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일이라는 행위와 1920년대 기독교계 운동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지요. '1920년대 여성항일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교육계몽운동, 애국부인회운동, 여성민중운동, 근우회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운동은 거의 1920년대 여성계몽운동, 그것도 기독교계 운동으로만 제한한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1919년 말, 20년, 21년 초를 제외하고 '항일이라는 행위'가 국내 계몽운동/ 민족운동이나 기독교계 여성운동에서 구체적으로 들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주 언급되는 것이지만 3.1운동때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기독교계 여성운동이 1920년대 계몽적 운동을 거쳐서, 다소 나누어지긴 하지만, 1930년대로 가면 기독교계 여성운동은 항일여성운동으로 넣을 수 있는 운동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930년대 이후 국내항일여성운동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선생님 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920년대 국내항일여성운동은 아주 다양하고 항일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운동은 국외독립운동단체와 연결된 조직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담긴 여성운동단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서의 자기출신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연구로 나아가는 경향에 대한 음양을 지적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화컨텐츠 발굴 차원에서 그 지역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를 주목한 점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희순, 남자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지역사연구자들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이들에 관한 원자료나 그들의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료나 장소 발굴 등의 성과를 지역에 국한시키니 않고 전체 독립운동사 흐름과 함께 다시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작업구조는 어떻게 하면 정착될 수 있을까요.

여기 발표자 여러분들이 언급한대로 우리의 시야를 해외항일운동과 연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90년 이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미세한 고민을 함께 나눌 정도로 우리의 여성사, 여성독립운동사의 수준을 좀더 끌어올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맺음말에서 제시한 과제는 오늘의 항일여성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중요한 관점이며 자세입니다. 여기에 오늘 다른 지역에 대해 발표하신 선생님께도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구미지역이 아니고 공산주의를 경험한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에서, 오늘의 한국, 중국, 러시아 지역의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시나 지금 민족문제, 계급문제, 여성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족, 혹은 조선민족이라고 분리해서 보는 것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 등이 점검되어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서의 과제도 제대로 짚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외의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심포지엄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토론2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에 대한 토론문

이 숙 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 「1920-3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사 검토」에 대한 토론문

이 속 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먼저, 김형목 선생님께서 이 발표문을 쓰시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문은 시간적으로 1920~30년대를 포괄하고, 지리적으로도 중국 관내 및 동북지역(만주지역), 그리고 러시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습니다. 6장에 달하는 방대한 참고문헌만 보아도 선생님의 정성과 노고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항일여성운동사 전체를 개괄한 글이 흔치않은데 어려운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긴 했으나 이 시기에 연구 성과는 몇 편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개진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2004년 한국여성사학회가 창립된 뒤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여성사도 역사학계 내에서 한 분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성사 연구의 질적, 양적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 더불어 여성독립운동가, 여성들의 항일운동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 되어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항일여성운동사의 연구동향은 거의 여성단체와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한국독립운동사의 연구 성과를 볼 때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인물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 혹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방에 나갔던 남성독립운동가들과 달리 여성들은 늙은 시부모와 어린 자식을 지키며 한인 공동체사회 존속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사'를 독립운동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여성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삶을 단지 '일상사'로 범주화하는 것은, 그 일상을 아무리 중요하게 평가하더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무관학교 학생들의 교복을 만들고, 독립군의 군복 제작과 세탁, 군인들의 취사, 의연금 모금, 선전활동 등을 담당했습니다. 비록 군인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가정에서 여성들은 후방지원부대의 역할을 '일상'으로 해냈습니다.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정체성을 단지 '아내',

‘며느리’, ‘어머니’ 라는 틀에서만 본다면 그 일상은 가족의 테두리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독립운동가 아내들에 대한 평가는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관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지역의 항일여성운동사를 인물과 단체 중심으로 파악하셨습니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각 지역의 여성항일운동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중국 관내 지역의 여성항일운동가의 활동은 1920년대는 소극적이었지만 1930년대를 거쳐 40년대가 되면 여권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동일시하는 진보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이 지역의 여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활동했던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여성항일운동가들이 근대식 교육을 받았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중국 동북지역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920년대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여성항일운동도 그 테두리에서 작용한 반면, 1930년대는 여성들이 중국항일연군에 직접 투신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지역의 여성항일운동은 종교,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지역은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가장 밀접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의외로 여성들의 항일운동은 대부분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유시참변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연구의 부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연변에서 발간된 항일여성사 서적들은 학술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소위 ‘조선족’ 여성들의 항일투쟁을 우리 민족사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숙제를 던져줍니다. 이주 한인들은 광복 이전만 해도 ‘조선인’, ‘한인’, ‘선인’으로 불려 이들은 한국사의 범주에서 존재했지만, 이후로는 ‘한비’라고 하여 유랑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성립된 이후로는 ‘중국 조선족’으로 불립니다. 현재 연변에서 출간된 여성독립운동사는 이러한 민족의 연결성은 제거되고 중국공산당의 여성해방 정책에 맞추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여성들의 항일운동사를 한국독립운동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방법론에 관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국제 심포지엄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토론3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선 이 (경희대학교)

---



##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선 이 (경희대학교)

위 논문은 중국에서 한국 여성독립 운동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개괄한 글이다.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를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인물전기, 회고록, 문집, 수필집 등을 소개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중국에서 한국 여성독립운동의 한계와 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이해를 돕는 상당히 의미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여성, 독립운동은 중국이 갖는 지역적 의의와 맞물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청나라의 봉금정책이 취소되고 이민실변정책(移民實邊政策)이 시행된 1870년대를 전후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함경남북도 사람들과 평안남북도 사람들이 간도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그 후 조선이 일본에게 강점(強占)되는 191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이주와는 달리, 그 이전부터 의병활동을 했거나 강점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한인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만주를 필두로 중국 각지로 이주해 갔다. 이때 이주는 대체로 가족단위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대해 발표자는 “국외 망명지에서의 독립운동이 독립운동 그 자체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의 여성독립운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일상생활’의 영위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행위였으며 이는 주로 여성들의 고된 노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발표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항일투쟁의 여성투사’들만이 아니라 생활 속 여성들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틀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 중국에서의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상 속 저항’, 혹은 ‘일상생활의 영위=독립운동’이라는 이해 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가에 따라 접근의 양상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선족에 의한 조선족 역사의 일환으로서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다루는 것과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항일전쟁승리의 역사 속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과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지 않을까 싶다. 혹시 발표자께서 중국인 연구자들의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방식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족에 의한 조선족 역사의 일환으로 서술한다고 할 경우 중국사의 역사서술과의 사이에 어떤 갈등같은 것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하다.

발표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김선화, 김옥희, 이재덕 등 항일 독립운동의 여전사들이 가졌던 '이상세계'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도 궁금하다. 항일 독립운동 후 이루고자 했던 '나라'와 1945년 일본 패망후 그녀들의 삶의 여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연구의 연구자 부족과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지니고 계신지 궁금하다.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연구의 활성을 위해서는 조선족역사에 있어서 독립운동이 지닌 중요한 의의를 이론화하는 작업과 한국의 독립운동연구자들과의 함께 연구하는 사업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여성독립운동은 더구나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선족연구자들과 한국의 여성독립운동연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자

주류 이라고 하는 역사, 그리고 한국, 북한 등서의 지원의 역사지역적 특징, 동베이 지역의 소수민족(조선족)

여성의 참여

## 조직위원회

- 이 사 장 김희선
- 대표이사 송형종
- 이 사 강정숙
- 이 사 노명희
- 이 사 손 윤
- 이 사 이민석
- 이 사 흥정석
- 이 사 김애영
- 이 사 박정희
- 이 사 신영숙
- 이 사 최성자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송형종 행사 총연출
-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신영숙 국제심포지엄
- 기획사업분과 위원장 남상만 만주독립항쟁역사유적지답사, 국제심포지엄
- 공연예술분과 위원장 김경익 공연연출(랩 대회, 독백 대회)
- 시각예술분과 위원장 이구영 역사화 제작 및 전시, 캐리커처 프로그램
- 영상예술분과 위원장 이민재 시나리오 공모전
- 홍보분과 위원장 이은주 온·오프 홍보 강화
- 청년미래분과 위원장 흥정석 주제 공연 지원
-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표대연 후원 기관 협찬 의뢰
- 대외사업분과 위원장 이길용 후원 기관 협찬 의뢰, 대외사업

## 국제심포지엄 준비위원

-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신영숙
- 위원 이선이
- 위원 이희수
- 사무국장 임선영
- 간사 최우영
- PD 박소리

